

리아호나

배우자가 외설물에
빠져 있을 때 필요한
도움과 희망 찾기,
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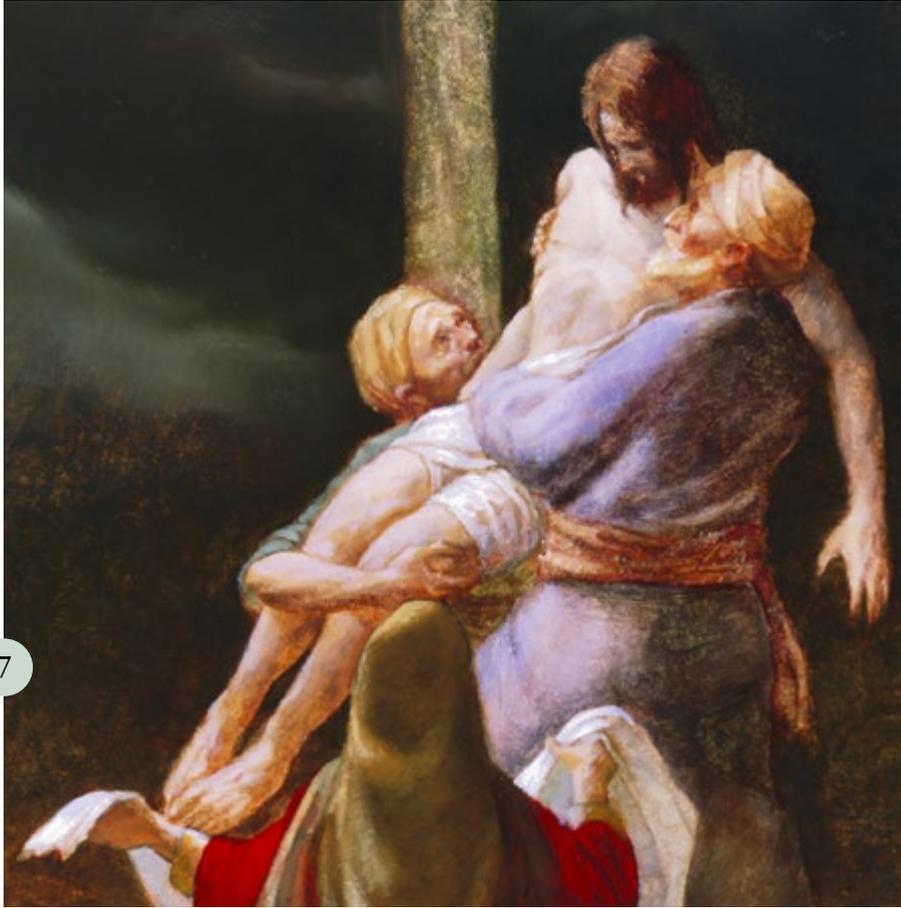
성신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16쪽.
과거의 조각과 단편들을
연구하는 방법, 22쪽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이 하나가 될 때
생기는 힘, 34쪽





이 장로들은 1913년에 덴마크에서 봉사했다. 수십 년 전에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받은 "이미 ... 추수하게 되었"으며(교리와 성약 4:4) "네게 가장 값이 있을 일은 ...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계시하셨다.(교리와 성약 15:6) 그 말씀에 따라, 선지자 조셉과 이후의 교회 회장들은 많은 초기 성도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주었다.

앞쪽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7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나 너 사랑하듯"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다

특집 기사

- 14 인생은 연극이다: 3막의 연극으로 알아보는 구원의 계획 / 마거릿 윌든
영원에 걸친 우리의 존재는 3막으로 된 연극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연극의 대본이 된다.
- 16 영의 음성 /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우리가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영은 경고와 인도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 20 신앙의 초상 / 아드리아나 곤잘레스
- 22 연구와 신앙으로 교회사 이해하기 / 키이스 에이 에릭슨
어떻게 하면 불안정한 역사의 조각과 단편들도 역사를 가장 잘 연구할 수 있을까?
- 26 비통함과 희망 / 외설물에 연루된 사람의 배우자가 희망과 견딜 힘을 찾을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
- 32 성전을 찾아서 / 미레 루페
거룩한 장소를 찾던 끝에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 34 가족 역사와 성전 축복 / 데일 지 렌런드 장로, 루스 엘 렌런드, 애슐리 알 렌런드
가족 역사와 성전의 축복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권능이 임한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6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0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진정한 기적, 치유 / 조나단 테일러
- 1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저는 죽게 되나요? / 그레고리 햄블린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어리석은 별의 비유 /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표지
앞표지: 그녀는 잃은 것을 찾으리 그림의 일부, 브라이언 커쉬스닉.



44

44 불완전함 속에서 찾는 평화
엘리자베스 로이드 런던
개인적인 약점으로 낙담하게 되는 때가 있지만, 불완전함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다.

48 약점을 극복하고 신앙을 다지다
이 트레이시 윌리엄스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나는 구주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50 친구들과 함께 갈림길에 서서
스티븐 더블유 오언 형제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결정들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53 포스터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54 찾기, 가져가기, 가르치기:
성전 도전 과제에 참여하라
칼리사 크래머
주님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방법은 간단하다. 찾고, 가져가고, 가르치면 된다!

56 가족 역사에 참여하는 세 가지 방법
샬리 존슨 오드커크
가족 역사를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 세 명의 청소년이 그들의 경험을 나눈다.

59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고린도전서 10:13.

60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변화를 이루는 방법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61 우리들 공간

62 질의응답
“숙제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교회 활동과 가정의 밤,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64 현실로 다가온 구원의 계획
앨리사 홀
내 청년 지도자셨던 자매님이 돌아가신 후, 갑자기 구원의 계획이 그저 차트에 그려진 그림 이상의 이미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렌탈린이에요.



68

66 따돌린다고? 내가?
메릴리 부른
제프는 그저 벤과 돌이서 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쌤은?

68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
친구에게 사랑을 나눠요
데반 젠슨

70 곱셈 전문가
제시카 라슨
루카는 곱셈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72 사도들의 답변:
신권 열쇠란 무엇인가요?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74 경전 인물:
침례와 신권이 회복되었어요

75 연차 대회 인용문 카드

76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어린이였을 때
김 웹 리드

79 색칠하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50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운동장에서 친절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2017년 2월호 제54권 제2호
리아호나 14442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먼,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원: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쿤엔틸 열육, 다도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던스,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편집자: 조셉 더블유 시타티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클리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랜들 케이 베네트, 진 비 빙엄,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크리스토퍼 골든, 더글러스 디 홀츠, 에릭 더블유 쿠퍼피쉬케, 래리 알 로랜스, 캐럴 에프 맥클리, 캐롤 엠 스티븐슨

관리 책임자: 피터 에프 에벤즈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메간 사이츠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에티, 데이비드 믹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토, 로리 폴러, 게리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질 크리스틴 해킹, 샬러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리크, 조슈아 제이 퍼거, 쟈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바, 린다 니 셀루, 돌 벤덴버그, 머리아 왓슨

편집 인턴: 마거릿 엘 월든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넨스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렛 앤드류스,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데이비드 그린, 폴린 핑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미스,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렌호스트

다크 인턴: 앨리사 존슨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거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알 피터슨

제작팀: 글렌 에데어, 콘니 바솔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카비, 지니 제이 닐슨, 가일 타데 러퍼터, 데렉 리처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테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벨링가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store.lds.org에 접속하거나 해당 지역 교회 배부 센터나 와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 신청 및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611호, 제54권, 제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7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약술정보(주) 채중훈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 또는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시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_fm_2420_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틴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톨리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폴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들은 (교회 부름 수행을 포함하여) 개인적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ebruary 2017 Vol. 41 No. 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가정의 밤에 활용할 만한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저는 죽게 되나요?” 12쪽: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영원한 진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 성구를 읽고 구원의 계획에 대해 공부해 본다. 니파이후서 2:22~25; 9:10~11; 열마서 34:32~33; 40:11~14; 42:5~15; 고리와 성약 76:30~113.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각 성구와 연관지어 그에 관련된 구원의 계획의 부분을 도식으로 그려 본다.(도식의 예를 살펴보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54쪽을 참조한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서로 각 원리를 가르치는 연습을 해 본다.

“찾기, 가져가기, 가르치기: 성전에 대한 도전 과제 수행에 동참하십시오”, 54쪽: 여러분은 이 도전 과제를 수행해 보았는가? 주님의 사도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성전에서 행한 침례 의식 횟수만큼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하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누군가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여러분은 이 권고를 가족으로서 함께 실천할 수 있다. 이 도전 과제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templechallenge.lds.org로 들어가서, 가족 역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별 조언을 찾아본다. 다음 가정의 밤 활동으로 성전에 가져갈 이름을 준비하는 활동이나 친구들에게 가족 역사 하는 법을 알려 주는 활동 등을 고려해 본다.

인터넷 활용하기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liahona.magazine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 가정의 밤 제언,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본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역사, 32, 34, 54, 56	신권, 72, 74	이훈, 26, 43
교회사, 22, 74	신앙, 22, 40, 48, 70	중독, 26
구원의 계획, 12, 14, 64	십일조, 61	치유, 10, 26
기도, 42, 70, 72	약점, 44, 48	친구, 50, 66
사랑, 4, 7, 64, 79	영역, 64, 80	침례, 74
선교 사업, 32, 40, 42, 48, 68	영원한 가족, 4, 32, 34	평화, 12, 41, 42, 44
성신, 16, 42	예수 그리스도, 7, 10, 12, 42, 48, 76	회개, 60
성전, 32, 34, 54, 56, 61, 76	76	
성찬, 41	외설물, 26	
소망, 26	우선순위, 62	
속죄, 7, 10, 14, 44, 48	유혹, 59, 6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나 너 사랑하듯”

수년 전, 루이스라는 제 친구가 다정하고 상냥하시던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훈훈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루이스의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큰 모범과 희생, 순종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추도사가 전달되고 묘지를 향한 애도의 행렬이 끝난 뒤,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은 몇 안 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루이스는 거기서 쪽지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퉁이 쪽 침실에 있는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단다. 그 안에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으니 이 열쇠로 열어 보거라.”

다들 어머니께서 상자에 넣어 열쇠로 잠가 두실 만큼 소중한 보물이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형제들은 상자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열쇠로 열어 보았습니다. 상자의 내용물을 살펴다 보니 거기에는 형제들 한 명 한 명의 사진이 들어 있었고 사진마다 이름과 생일이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누군가 직접 만든 밸런타인데이 카드를 집어 들었습니다. 카드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체로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그 글씨가 60여 년 전 자신이 쓴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눈가는 촉촉이 젖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보물은 바로 영원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이 오가는 굳건한 기초가 있었기에 가족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그런 사랑의 굳건한 기초가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기초의 모범이 가장 훌륭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사랑을 가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후기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¹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평소에 서로 친절히 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친절한 말을 하고, 참을성 있게 반응하며,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이해하고자 귀 기울이며,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여러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 무지개 끝에 있는 황금 단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개의 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무지개가 시작되는 곳에도 존재하며, 사랑으로부터 생겨난 아름다운 무지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하늘을 수놓습니다. 사랑은 어린이들이 흐느껴 울면서 바라는 안정이며, 젊은이의 소망이고, 결혼 관계를 묶어 주는 단단한 끈이자, 가정에서 일어날 치명적인 마찰을 막아 주는 윤활유입니다. 또한 사랑은 노년의 화평이며 죽음 너머에까지 빛을 발하는 소망의 빛입니다. 가족, 친구, 교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만끽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²

사랑은 복음의 정수이며, 인간의 영혼에 깃든 가장 소중한



속성입니다. 사랑은 약해진 가족과 병든 사회, 붕괴해 가는 국가를 위한 치유제입니다. 사랑은 미소와 손짓, 친절한 말과 칭찬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자 봉사이며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귀하게 대하고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자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간증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순종하십시오.

물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라고 했습니다.³ 우리가 물론의 권고를 따라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 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⁴ ■

주

1. 요한복음 13:34~35.
2. 고든 비 힐클리,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의 빛, 1984년 8월호, 1쪽.
3. 모로나아서 7:46; 또한 44절 참조.
4. 모로나아서 7:48.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문 순 회장은 특히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표현할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도록 부탁할 수 있다. 의견 중 하나를 골라 목표를 세우고 가족이 함께 달성할 수 있게 계획하도록 독려한다. 예컨대, 매주 각자 가족 한 명을 정해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봉사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정에서 사랑이 어떻게 더 커졌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권고한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새라 티

부 모님은 교회가 끝난 뒤 모임에 참석하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세 남동생을 돌보며 함께 점심을 준비하곤 했다. 물론 동생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배고파했지만 말이다. 보통 동생들이 다툼을 시작하려 하면 내가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편이었다. 하지만 일단 다툼이 시작되면 나도 감정이 동요된 나머지 동생들을 화해시키기가 어려웠다.

동생들이 유달리 다투던 어느 오후의 일이다. 아무리 동생들을 화해시켜 보려 해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듯했다. 나도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입을 꼭 닫고 내가 먹을 음식만 준비한 뒤 동생들에게 말했다. “누나 기도할 거야. 잠깐만 조용히 해 줄래?” 동생들이 흥분을 가라앉히자 나는 음식 축복을 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저희가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처음에 동생들은 듣지 못했는지 다시 다툼을 시작했다. 짜증이 났지만, 바로 조금 전에 평화를 구하며 기도한 터라 다정하고 차분한 누나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마음이 매우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말없이 식사를

했고, 결국 동생들은 싸움을 멈췄다. 내가 느꼈던 평온은 간결한 기도에 주어진 응답인 것 같았다. 나는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고자 기도했고,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유혹이 거세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차분해질 수 있게 도와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진정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심을 안다.

글쓴이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산다.

어린이

진정한 보물

몬 스 회장님은 특별한 보물 상자를 가지고 있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녀들이 그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자신들의 사진이 있었답니다. 어머니의 보물은 바로 가족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보물 상자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거나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다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알고자 영감을 구한다. 하나님의 딸들이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한 준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신앙,
가족,
구제

우리가 불멸을 얻고 영생을 누릴 가능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한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우리 구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5, 38~39)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주께서 겐세마네에서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 위의 고통은 공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이에게 자비를 보이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속죄는 또한 우리가 아무 잘못 없이 겪는 고통을 치유하고 보상하여, 공의가 우리에게 진 빛을 갚아 줍니다.

‘이는 보라, 그가 만인의 고통, 참으로 아담의 가족에 속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심이라.’(니파이후서 9:21; 또한 앨마서 7:11~12 참조)¹

그리스도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다.(이사야 49:16)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독생자이자

완벽한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와 심적 고통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위해 고통받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지극한 사랑에 우리는 각자 마땅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²

추가 성구 및 자료

요한복음 3:16; 니파이후서 2:6~7, 9; reliefsociety.lds.org

주

1.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구속,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10쪽.
2. 린다 케이 버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마음에 새겼는가?”,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14쪽.



생각해 볼 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의 속죄라는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2016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및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 살펴보기

지혜의 말씀

“18 33년에 주님께서는 건강한 생활에 대한 계획을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교리와 성약 89편에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지혜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은 특별한 축복을 약속받는데, 그러한 약속에는 건강과 강한 체력이 포함됩니다.[교리와 성약 89:18~21 참조] …

… 형제 여러분, 신성하게 제정된 계획인 지혜의 말씀에 명시된 원리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간증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원리와 약속”,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78, 79쪽.

선지자의 약속



안식일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종들이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하는 성찬을 매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그 신권 소유자들이 드리는 성찬 기도문의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으로부터 확인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도록 무한한 희생을 하신 구주에 대해 더 큰 사랑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빵과 물을 취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우리의 그분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의 축복은 우리가 ‘항상 그를 기억하[라]’는 계명을 더 쉽게 지킬 수 있게 해 줍니다.[모로나이서 4:3; 5:2; 교리와 성약 20:77] 또한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성신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에 그와 같은 축복을 세어 보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안식일에 드리는 감사”,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00쪽.

이 고통하는 때에 힘차게 일어서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힘든 삶을 감당할 내적인 힘과 신앙이 우리 자매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전심을 다해 믿습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 연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

우리는 이 후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교리와 조직과 권세의 열쇠들이

회복되어야 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우리는 성전 의식과 성약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

저는 주님께서 이 고통하는 때에 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 모든 권능과 은사와 힘을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보니 엘 오스카슨, 본부 청년 회장, “힘차게 일어서라, 시온의 자매들이여”,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3, 15쪽.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됩니까?

“필멸의 삶의 위대한 목적은 단지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네 단계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

미래의 어느 날,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모사이사야 27:31] 그 축복된 날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각자를 아시고 이름을 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을 깊이 알게 될 것임을 여러분께 간증하고 약속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03, 105쪽.

비교해 보기

간증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리에 단단히 고정하기

몇몇 연사들이 간증이 약해지는 일로 힘겨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했다. 2016년 11월호를 활용하거나 conference.lds.org를 방문하여 그분들의 말씀을 읽어 본다.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그 또한 강하게 되게 할지어다”, 71쪽 참조.
- 엠 러셀 벨라드,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90쪽 참조.
- 쿠엔틴 엘 쿡,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여”, 40쪽 참조.
-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잊어버리지 말라”, 113쪽 참조.

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 치유

조나단 테일러

사고를 당한 후, 내 몸의 마비는 나아지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영의 마비는 나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2000년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난 해였다. 그해에 아내와 나는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았고 우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다. 또한, 2000년은 딸의 생일이 겨우 5주 지난 뒤 내가 몸을 쓸 수 없게 되어 버린 해이기도 하다.

그해 여름에 나는 집 근처에 사시는 연로하신 자매님 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잔디를 깎아 드리곤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워낙 피곤했던 탓에 나는 주의를 게을리했고, 뜻하지 않게 차에 치이고 말았다. 살아난 것만도 기적이었지만 불행히도 내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일이 지나고 깨어났을 때, 내 몸은 가슴 아래로는 근육을 전혀 쓸 수 없게 마비되어 있었다.

마비는 영구적인 장애이다. 현대의 과학과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마비를 고칠 방법은 없다. 당연히 나는 두려움이 앞섰고 어떻게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리고 아내 그 두려움은 어리석었던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분노로 변했다. 왜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았더라 말인가, 왜 헬멧을 쓰지 않았더라 말인가.

내가 짐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장애를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법과 다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여러 달이 걸렸다. 그러는 한편, 나는 마비된 몸으로 생활한 덕분에 경전과 구주의 속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치유하신다.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용서하신 데 의문을

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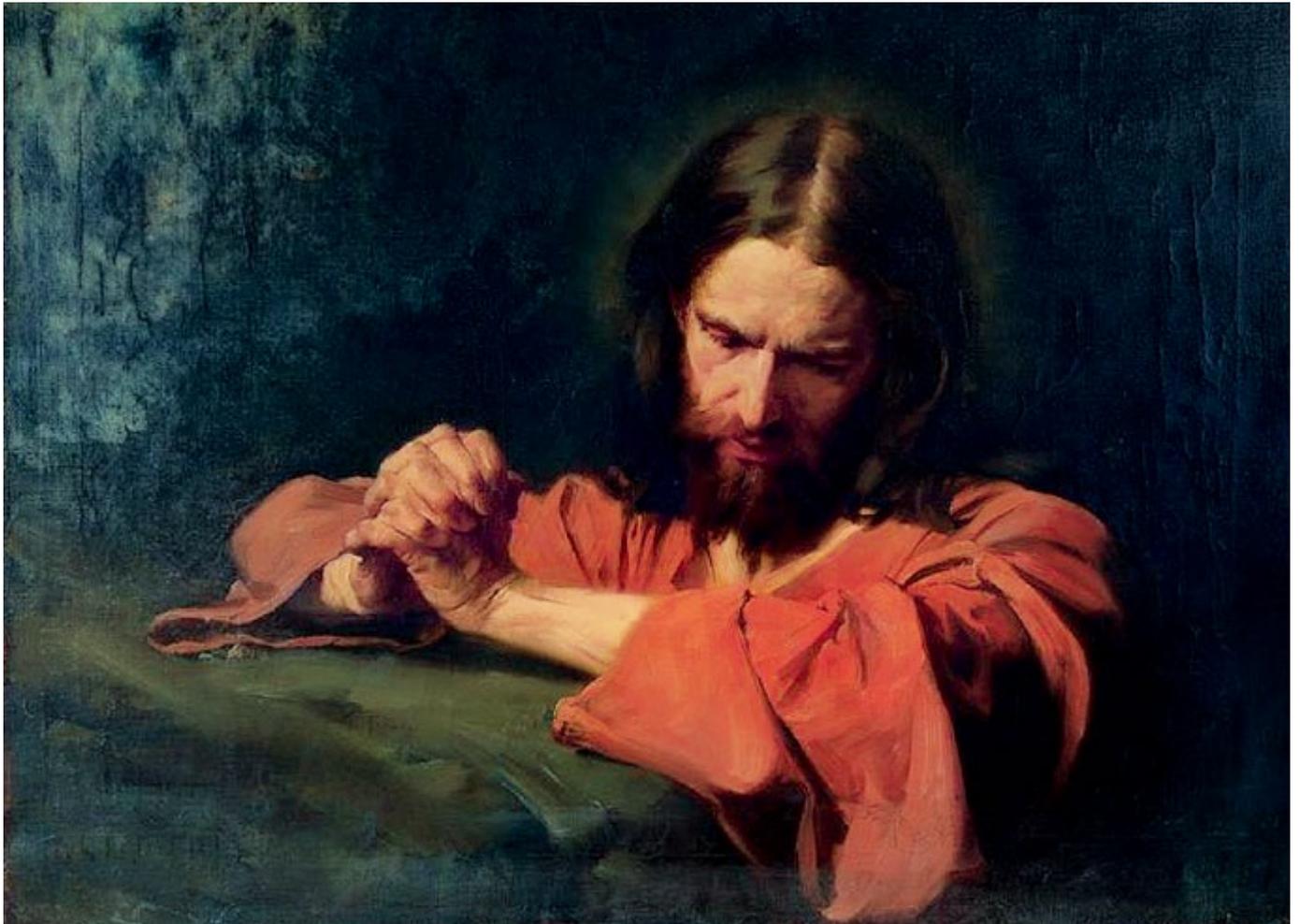
나는 전에도 여러 번 이 구절을 읽었지만, 사고를 당하고서야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을 읽으며 예수께서 그렇게 치유하신 것이 진정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로부터 이천여 년이 지나 의학이 놀랍게 발전한 지금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런 식으로 병을 낫게 할 수 없으며, 나는 하루하루를



가장 위대한 기적

“제게 있어 이생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흥해를 가르고 산을 옮기거나 육신을 치유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 죄가 용서받기를 열렬히 구하고, 그 후에 죄로부터 깨끗해져서, 구주께서 베푸신 속죄의 희생으로 변화하는 일입니다.”

린다 에스 리브즈, *리아호나*,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위대한 구속의 계획”,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90쪽.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많이들 이 성구에서 얻는 교훈은 그리스도는 불치병도 낫게 하실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특히 육신에 일어난 기적은 접어 두고 영에 일어난 기적에 집중한다면 이 성구에서 훨씬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큼이나 죄로 인해 영이 마비된 상태를 사람이 스스로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구주의 속죄야말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적임을 알게 되었다. 이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내가 몸을 일으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다. 이 기적의 본질은 10절과 11절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의 결과로부터 치유받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얻게 되는 가장 큰 기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속죄를 치르시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셨다. 그분은 이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지 아신다. 그분은 크든 작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장애와 나약함, 그리고 극복할 문제들을 가졌는지 이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세상 누구도 죄라는 영적인

마비를 치유할 수 없다.

내가 이 점을 깨닫는 축복을 받았음에 감사하다. 그런 통찰은 내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며 그 장애를 통해 더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게 필요한 시각과 안목을 제공해 주었다. 이제 나는 나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며 사고 전에 좋아하던 일들을 하러 다니기도 한다. 그리고 내 몸의 상태와 관계없이 여전히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장애를 입고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축복하신다. 나는 구주가 계심과, 그분이 속죄를 행하셨음에, 그리고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 감사한다. ■

글쓴이는 미국 와이오밍 주에 산다.

저는 죽게 되나요?

그레고리 햄블린

아들이 왜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복음의 진리 속에는 아들에게 필요한 확신이 있었다.

일 곱 살 난 아들은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졌던 것이다. 나는 도와주어야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다가가 체인을 살펴보려고 자전거를 눕혔다. 자전거를 손보는데 아들이 물었다. “아빠, 죽을 때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뭇 놀라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아들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무슨 소리니? 그렇지 않아!” 내가 말했다. “넌 죽지 않아.” 내가 도로의 경계선에 걸터앉자 아들이 내 무릎으로 올라왔다. 아들은 울음을 멈출 줄 몰랐다. 난데없이 무슨 소리람?

“배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다.

이 녀석이 공포 영화라도 본 건가? “아니!” 내가 말했다. 나는 다시 한 번 그가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주었다.

“아니예요, 아빠.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다. 이렇게 어린아이랑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되면서 절대로 아이들에게 진실을 감추지 않겠다고 다짐한 나였지만, 아이 중 누구에게라도 넌 언젠가 죽게 될 거라는 말을 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다. 나는 답을 피해 보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건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행복하고 재미있게 지내면 되는 거야. 넌 아주 오래오래 살아 있을 테니까.”

“진 죽기 싫어요.” 아들이 말했다. “이 일을 어쩔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또 잘못 말하면 그에게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떻게 하지?” 나는 마음속으로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구원의 계획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며, 모두 영과 육이라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어야만 하는데, 그때는 단지 육신만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영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절대 죽지 않는다고도 말이다.(엘마서 40:11 참조)

또한, 설령 우리가 한동안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함께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과,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라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언젠가 육신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죽음을 겪지 않으리라고 가르쳐 주었다.(엘마서 11:43~45 참조)

아들은 나에게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의 장례식에서 두 분께 작별 인사를 한 적이 있으며, 그분들의 몸은 죽은 상태이지만 영은 아직도 살아 있고 우리는 때때로 그분들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아들은 두려움이 가시자 울음을 멈추고 여느 때처럼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돌아가신 친척들이 우리를 방문하기도 한다는 말을 듣더니 활짝 웃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가 수리한 자전거를 차고에 넣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곱씹으며,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고 싶었던 내 소망과 아들에게 들려준 말들을 떠올려 보았다.

바로 그 순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다는 사실이 한없이 감사했다. 구원의 계획이 참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나는 아들에게 자신 있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아들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순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은 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였다. 선교 사업을 준비할 무렵, 나는 내가 가르쳐야 할 복음의 모든 측면에 대해 간증을 얻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

나는 공부하고, 숙고하고, 기도했으며, 간증을 얻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얼마 후, 부활은 실재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실제로 존재하며, 구원의 계획을 통해 주어진 약속들이 참되다는 것을 성신의 증거로써 알게 되었다.(니파이전서 10:19 참조)

이 간증은 내 선교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아들에게 마음의 평온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간증을 가질 수 있음에 매우 감사하며, 구원의 계획이 참됨을 간증한다. 나는 우리가 가진 간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증한다. 우리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간증과 이해는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네바다 주에 산다.

인생은 연극이다

3막의 연극으로 알아보는
구원의 계획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로 3막으로 된
연극의 2막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영원히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거릿 윌든

조 명이 어두워진다. 두툼한 붉은 색 막이 올라간다. 여러분 주위에서 의상을 갖춘 등장인물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누구일까? 악역은 누구일까? 단정 짓기 어렵다.

무대의 중앙에 선 여러분은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다들 모든 것을 이해하는 모양이다. 배우 하나가 속삭인다. “지금 2막이에요. 이 대본을 훑어보세요.”

우리가 다 배우는 아니겠지만, 이런 연극을 떠올려 보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라고도 하는 구원의 계획을(앨마서 42:8) 3막짜리 연극이라고 해 보자. 1막은 우리가 떠난 곳이며, 2막은 지상에서의 삶이고, 3막은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다. 2막에 있는 동안 우리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미래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것이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연극의 대본이 있어서 필멸의 삶이 놓인 전후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다.

1막: 시작을 이해하다

우리는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우리의 전세가 어떠하였는지를 배운다.(아브라함서 3:22~24 참조) 지상에 오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평의회에 참석한 우리는 지상에 와서 육신을 얻고 후손을 갖게 되며 반대되는 것을 경험하고 빛과 진리를 키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순종하고 더욱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언젠가 다시 아버지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실수를 하게 될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짓값을 치를 구주로서 선택되었다. 그분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고통을 겪으셨다. 그분이 희생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전세에서는 루시퍼라고 불렸던) 사탄은 모반을 일으켜 옳은 것 또는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없애려 하였다. 천국 전쟁이 시작되었다. 패배한 사탄은 자신을 따르기로 한 영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다.(모세서 4:1~4 참조)

전세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상에 가게 되면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2막: 선택의지를 발휘하다

지금 우리는 2막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께 돌아올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대본을 주셨다. 이 대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가 받은 과제는 선택의지를 발휘하여 대본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아브라함서 3:25) 부차적인 줄거리가 여러 개 등장하는 복잡한 연극처럼, 우리가 사는 필멸의 삶은 단순하지 않다. 삶에는 온갖 유혹과 시련, 비극이 얽히고설켜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2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전은 행복에 이르는 완전한 방법을 밝혀 주며,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디도록 우리를 북돋워 준다.(니파이후서 31:20) 우리는 성약을 맺고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며, 죄를 회개할 때 성장한다. 경전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한다면, 1막에서 기쁘게 따르기로 한 그 계획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3막: 영생을 얻다

우리의 육신은 2막이 끝날 무렵에 죽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실, 3막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아브라함서 3:26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었기에 지상에 온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부활할 것이다. 부활만큼 기쁜 일이 또 있겠는가?(교리와 성약 93:33 참조)

대부분이 각자 한 일에 따라, 별들의 영광과 같은 영광이 있는 별의 왕국, 달의 영광과 같은 영광이 있는 달의 왕국, 해의 영광과 같은 무한한 영광이 있는 해의 왕국 중 하나를 영광의 등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76:50~113 참조) 해의 왕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다. 한편, 이에 비해 극히 적은 숫자가 “그대로 더러[운]” 상태에 머무른 채(니파이후서 9:16) 더는 진보할 수 없는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게 된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2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면, 이 연극의 3막은 믿기 어려울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미 막은 열렸다. 연극은 진행 중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무대를 채울 것인가? ■

글쓴이는 미국 뉴욕 주에 산다.

이 글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이 1995년 5월 7일 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년의 모임에서 전한 말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영의 음성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침실인 정원희

성신을 향해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하시며 시계를 팔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시계방 뒤편이 저희 가족들이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저는 벽시계며 손목시계 따위의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매일 시계방 문을 닫을 때가 되면, 아버지는 낮 동안 손보신 벽시계 몇 개를 집으로 가져오셔서 침실 근처 벽에 걸어 두셨습니다. 저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며, 왜 우리는 그 온갖 시계 소리 속에서 잠을 자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시계에서 나는 소리는 결국 그렇지 않았더라면 고요하기만 했을 밤의 익숙한 한 부분이 되어 갔습니다.

두어 해가 지나, 저는 아버지의 시계방에서 일을 시작하여 시계 고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제 생각의 폭을 넓혀 주었고, 저는 왜 아버지가 벽시계를 가게에 두지 않으시고 집으로 가져오셔서 침실 밖에 걸어 두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간밤에 네 침실 근처에 걸어 두었던 시계 좀 가져오겠니? 밤에 들어보니 그 시계가 제대로 가지 않는 것 같더구나.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다.”

그렇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심장 소리를 살피듯, 아버지는 고요한 밤 동안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평생 갖가지 시계를 고쳐 오신 아버지는 시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시계가 잘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가 하셨듯 저도 밤이면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계 소리를 듣고 시계가 제대로 가는지,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복음 원리를 이해해 가면서, 저는 이 경험을 성신이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한밤의 고요한 순간들을 영적인 깨달음과 명상의 시간에 비유해 보기 시작했고, 시계 소리를 때때로 저를 경고하고 이끌어 주며 저에게 말을 건네는 영의 음성에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영적 자질

저는 이 경험 덕분에 성신의 속삭임에 관한 니파이의 경험이 참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몰몬경에는 니파이가 형제인 샘에게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자신에게] 나타내 주신 것들”을 들려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니파이전서 2:17; 강조체 추가)

니파이는 성신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 성신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꼈습니다. 니파이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의 응답과 영적인 인도를 통해 나타나는 분명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 니파이가 본 생명 나무의 시현(니파이전서 11~15장 참조)
- 신앙에 따라 움직이는 리아호나(니파이전서 16:10, 16, 26~30 참조)
- 결박당했다가 풀려난 니파이(니파이전서 7:17~18 참조)
- 바다를 건널 때 주님의 인도를 받은 니파이의 가족(니파이전서 18:21~23 참조)
- 광야로 달아나라는 주님의 경고(니파이후서 5:5 참조)

니파이는 부모의 모범 덕분에 어려서부터 영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자질들을 발휘한 덕분이었습니다.

- 소망: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이러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니파이전서 2:16) “[나는] 나의 부친이 보신 것들을 심히 알기 원[하였노라].”(니파이전서 11:1; 또한 3절 참조)
- 신앙: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니파이전서 2:16)
- 꾸준한 기도: “또 나 니파이는 자주 산으로 들어갔으며, 주께 자주 기도하였나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게 위대한 일들을 보여 주셨느니라.”(니파이전서 18:3)
- 순종: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부친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나이다 하였더라.”(니파이전서 3:7)

성신이 하는 일

니파이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에 대해 누구보다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평안할 때든지 고난이 몰아칠



때든지 영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 둔 터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성신이 하는 일”을 기록했습니다.¹(니파이후서 31~32장 참조) 우리는 니파이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웁니다.

성신은 계시합니다: “어떤 사람도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신은 계시자입니다.”²(니파이전서 10:17~19; 니파이후서 32:5; 모로나이서 10:5 참조)

성신은 영감을 줍니다: 성신은 생각과 느낌과 말을 전해 주고 이해를 밝혀 주며 생각을 이끌어 줍니다.(니파이전서 4:6 참조)

성신은 증거합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합니다.(니파이후서 31:18; 제3니파이 28:11; 이터서 12:41 참조)

성신은 가르칩니다: 성신은 지식을 더해 줍니다.(니파이후서 32:5 참조)

성신은 성결하게 합니다: 우리는 침례받은 뒤에 성신을 받음으로써 성결하게 됩니다.(제3니파이 27:20 참조)

성신은 생각나게 합니다: 성신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다.(요한복음 14:26 참조)

성신은 위로합니다: 힘겹고 절망스러울 때, 성신은 우리의



성신과 개인적인 계시

“성신은 우리가 교육, 선교 사업, 직업, 결혼, 자녀, 가족과 함께 살 곳 등과 관련된, 인생에서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적인 계시를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일에서 우리가 복음 원리에 따라 주어진 상황을 마음속으로 연구해 본 뒤,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기도로 당신께 알리기를 바라십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05쪽.

영을 고양하며 희망을 주고(모로나이서 8:26 참조),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며(교리와 성약 36:2),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게 합니다.(빌립보서 4:7)³

성신의 영향력

몰몬경의 첫 번째 장에는 리하이가 “영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니파이전서 1:12) 모로나이는 몰몬경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몰몬경]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라고 약속했습니다.(모로나이서 10:4)

성신은 이 영감받은 경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진리를 알고자 진정으로 소망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이 강력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모로나이서 10:4~5 참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신을 인식하고, 삶에서 성신의 영향력을 얻게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얻은 권리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크레이그 시 크리스틴슨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늘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성신을 느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영감 어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가슴 속에 오는 영적인 느낌으로 그것이 참됨을 압니다.”⁴

삶에서 성신의 영향력과 인도를 얻을 능력을 키우려면 니파이처럼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기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하고(니파이후서 32:9),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한 가지를 더 권고하셨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그 특별한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여십시오. ... 부디 우리가 그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줄, 이 위안과 인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⁵

저는 아버지께 현실적인 방법으로 영에 귀 기울이는 것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시계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저에게 이 교훈은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진정 성신은 여전히 그 교훈을 제 생각과 마음에 전해 주고 있으며,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저에게 약속해 줍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영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신을 향해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경로를 바꾸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조화롭게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주

1. 로버트 디 헤일즈, “성신”,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05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32쪽.
3. 성신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하여”,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59~62쪽; 로버트 디 헤일즈, “성신”, 105~107 참조.
4. 크레이그 시 크리스틴슨,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4쪽; 강조체 추가.
5.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계명을 지키라”,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4쪽.

성신의 영향력을 얻고 인도받으려면,

- 성신의 인도를 받으려는 소망을 기른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
- 항상 기도한다.
- 계명에 순종한다.





신앙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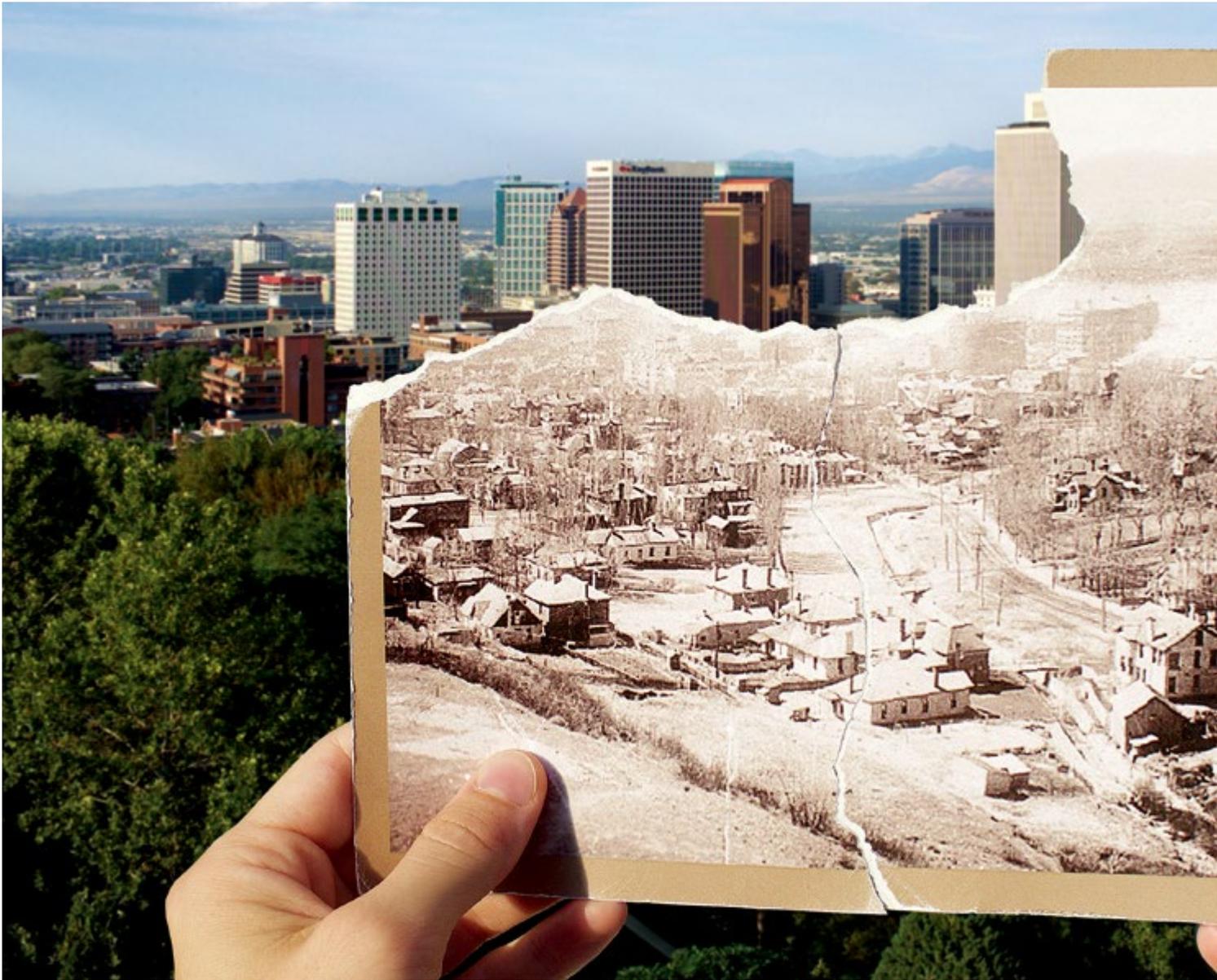
아드리아나의 주방 한 가운데 있는 푸른색 탁자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가 테이블 없이 생활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던 시절, 아드리아나는 교회 자립 과정을 들으면서 테이블 하나만 있다면 빵을 구워 팔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기도로 도움을 구했고, 버려진 목재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었다. 코디 벨, 사진 작가

아드리아나 곤잘레스

파라과이 센트랄 주

제가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은 항상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주님께서서는 제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제 기도를 들어주셨죠. 이제는 테이블이 두 개나 있어요. 이 테이블은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여기서 일도 하고,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해요. 자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저와 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뭔지도 알게 됐죠.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에게도 전해 주려 노력해요. 그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게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드리아나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와 사진을 보려면 lds.org/go/21721을 방문한다.
미디어 자료실에서 전체 포토 갤러리를 볼 수 있다.
교회의 자립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려면 srs.lds.org를 방문한다.



연구와 신앙으로

교회사 이해하기

오늘날 우리는 불완전한 조각으로 구성된 역사를 통해 과거에 대해 배웁니다.
이런 기록들을 연구할 때, 그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키이스 에이 에릭슨
교회 역사 도서관 책임자

역사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날짜나 사실을 암기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역사 도서관의 기록 보관자, 사서 및 역사가들은 교회사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거의 기록들을 날마다 수집하고, 보존하며, 공유합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일에는 배움과 탐구의 과정이 수반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간증을 강화하고, 의구심을 해소하며, 가장 좋은 일화를 알리고, 참된 교리를 분별하고, 사고를 향상합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얻는” 동안 “시온의 구원”을 가져오는 일도 돕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93:53)

역사가로서 저는 우리가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역사를 배우는 점을 깨달았습니다.(교리와 성약 88:118)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향유하고, 다양한 사료를 읽고 음미하며, 성구와 사료를 연결짓고, 적절한 맥락 안에서 정보를 숙고하며, 패턴과 주제를 살피고, 관련된 교훈을 파악할 때, 신앙과 연구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런 행동은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해 주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단편들만 남는다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는 지나가 버린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죽었으며, 그들의 경험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일기, 조직에 관한 기록, 물품들과 같은 과거의 일부는 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아 있는 그 조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과거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늘 소실된 정보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보존되어 남겨진 기록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는 가운데 이를 연구해야 합니다.

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조셉 스미스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보통 준비된 원고도 없었고, 음성 녹음이나 비디오 녹화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참석자 중 몇 사람이 메모나 소감을 기록했을 뿐이며, 심지어 그런 자료도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컨대 조셉의 설교에 관한 월포드 우드럽의 기록을 인용할 수는 있어도, 조셉 스미스가 말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사의 중요한 조각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방문에 관한 기록은 침례 요한의 방문에 대한 기록만큼 상세하게 남겨지지 않았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66~75 참조) 역사 연구에서 증거의 부재가 꼭 의구심을 낳는 원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 배울 때는 최대한 신뢰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검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결핍된 정보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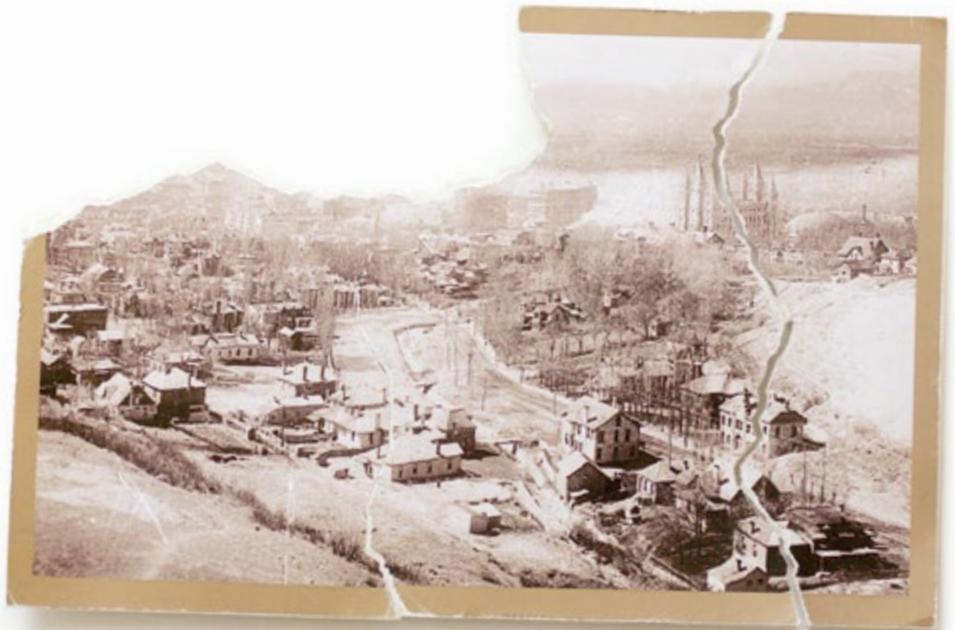
역사적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전하는 이들만 말을 할 뿐이다.

남아 있는 과거의 조각은 불완전하기에 어떤 사람은

일화를 전하려는 목적에서 그런 단편적인 조각들을 한데 모으려 하기도 합니다. 교회 초창기의 몇몇 일화들은 그 일화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통해 전해졌는데,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이 경험한 것 위주로, 또 그것이 왜 자신에게 중요한지를 기준으로 묘사됩니다. 몇몇 당사자들은 그들이 겪은 일화를 여러 곳에서 여러 다른 청중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관련된 많은 당사자들이 경험담으로 들려주기도 했고, 또 어떤 사건들은 나중에 그 사건이 생각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일화들을 수집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물품을 팔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려고, 또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화를 전합니다. 각 일화는 과거에 대한 해석으로서 자리잡지만, 그것은 단편적 사실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하는 사람의 기억과 관심사와 목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대한 일화들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모순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화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또 왜 그 일화들을 전하는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다음 이야기는 이야기꾼들의 이야기와 사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가 되었습니다. 1838년, 조셉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일어남과 발전에 관련하여 악의를 품은 교활한 사람들이 유포시킨 소문이 많”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과 교회에 관련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난 그대로 알리기” 위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 조셉 스미스에 관한 모든 일화들 중에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정확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해당 사건에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전한 이야기가 더 믿을 만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화는 과거의 해당 사건에 대해 구할 수 있는 모든 단편적인 사실들을 두루 고려하고 그 일화의 출처가 갖는 관점과 시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일화입니다.



불완전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역사를 마주할 때, 우리는 “겸손히 견도록, ... 인도하는 그 영을 신뢰”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1:12) 과거의 사람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현재와 다르다(그래도 괜찮다)

과거의 단편적인 사실들과 이에 관한 일화를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인물, 장소, 경험, 전통 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 및 문화의 변천은 출생, 먹거리, 여행, 휴일, 위생, 구애, 의료 행위, 죽음 등에 관한 다른 경험을 낳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 및 경제 체계는 교육, 선택, 자유, 기회에 관한 다른 경험을 창출합니다. 노동, 가족, 공공 서비스, 그리고 여성이나 소수 집단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시각은 과거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에 관한 모든 현재적인 면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크고 작은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조셉 스미스가 물문경을 번역하려고 선견자의 돌을 사용한 일은 현재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매우 특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에는 신성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 실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믿음은 부분적으로 신성한 목적을 위해 물질을 사용했던 성서상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민수기 17:1~10; 열왕기하 5장; 요한복음 9:6 참조)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조셉이 받은 계시에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된 방편으로 높은 곳에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 물문경을 번역하게 하셨으니”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0:8) 이 “방편”에는 선견자의 돌과 아울러 우림과 둠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어, 자기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며,] ... 이로써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어심을 보여 주시느니라”라는 교리적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0:11~12)

현재의 역측은 과거를 왜곡한다

과거는 우리 시대와 다르므로 현재의 관념이나 가치에 근거하여 과거를 어림잡작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다거나 지금의 우리 문화나 믿음을 똑같이 이해했으리라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을 안다고 믿거나,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다 읽어 보았으며, 과거에 대해 지금 아는 바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대해 뭔가 잘못된 문제가 제기된 경우, 사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잘못된 역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지자들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조셉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발견할 때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조셉이 완전했다고 완고하게 고집해서도, 또한 교회가 우리를 기만했다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보다는 조셉도 인간임을 인식하고, 선지자에 관한 경전 상의 다른 이야기의 맥락에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선지자 역시 필멸의 존재일 뿐이므로 그들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역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참을성 있게 일하신다는 점에 감사를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데는 겸손이 요구된다

불완전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역사를 마주할 때, 우리는 “겸손히 견도록, ... 인도하는 그 영을 신뢰”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1:12)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 과거의 결과에 관해 그 당시 당사자들이 알았던 것보다 많은 것을 압니다만, 우리 또한 당시의 생활상과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살던 사람은 그들 나름의 시대와 장소와 환경에 속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경험에 공감하려면, 우리 자신이 가진 제한된 지식과 한계를 겸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많은 답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려면 겸손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어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에 새로운 통찰을 제시할 때, 우리가 알던 바를 수정하고 새로 알게 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겸손이 요구됩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522쪽.

연구와 신앙으로 배우는 방식

우리는 교회사를 충실히 연구하면서 얼마나 이야기한 씨앗의 비유에 나온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앨마서 32:27~42 참조)

1. 우리는 위에 기술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교회사를 배우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2. 우리는 주의 깊게 읽고 숙고하여 우리 마음과 가슴에 씨앗을 심는다. (이 기록은 과거 사실의 일부인가, 아니면 나중에 전해진 일화인가? 누가, 왜 이 사실이나 일화를 이야기했는가? 주요 개념과 주안점은 무엇인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3. 어떤 자료의 출처가 얼마나 신빙성 있고 믿을 만한지 숙고해 보고, 자료나 기록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때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적절한 역사적 맥락 안에 대입해 보며, 우리의 개인적 상황에 적용될 만한 영원한 원리를 파악해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읽는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4. 평생에 걸쳐,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누고, 가르침으로써 교회사에 대한 충실한 연구 과정을 지속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다.
5.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충실한 연구로부터 오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신앙이 깊어질 것이며, 더 나은 반원과 교사, 부모와 자녀, 제자와 성도가 될 것이다.

비통함과 희망



배우자가 외설물에 빠져 있을 때

외설물에 빠진 사람의 배우자가 비통함을 이겨 내고 약속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7가지 방법.

부 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들이나 딸에게 바랄 만한 일이 있다. 에이미는 그것을 선택했다. 남편과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받은 후 성전에서 결혼한 것이다. 결혼 전에 예비 신랑 역시 용기 있는 선택을 내렸고, 자신이 외설물을 보아 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짧은 한 해가 지나자, 에이미는 남편이 외설물과의 싸움을 끝내지 못했음을 알았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 아기가 8개월이 되었을 때, 에이미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데 이어 교회에서 파문당한 것이다.

에이미는 어떻게 그 고통과 비통함을 이겨 냈을까? 또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많은 남녀는 어떻게 고통을 이겨 내고 있을까?

외설물에 관련된 사람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이런 일을 겪는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행동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교회 웹사이트 중 하나인 **OvercomingPornography.org**에서는 이런 일곱 가지 공통된 행동을 “필수 행동”이라 일컫는다. 이런 행동들은 속도나 순서 면에서 개인적으로 달리 적용될 수는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정서적, 정신적, 영적 치유에 큰 영향을

주었음이 입증되었다.

필수 행동 1: 배신감에서 오는 정신적 충격에 대처한다

배우자가 외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닥치는 정신적 충격, 자기 비난 및 그밖의 반응에 대해 배우고 그에 대처하기.

에바는 남편이 외설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극심한 고통, 분노, 비통함, 우울함, 강박감”을 느꼈다. 강박감은 실제로 배우자의 외설물 사용으로 배신감이라는 심적 외상을 입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증상이다. 이런 극심한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에바의 행동 또한 유별난 것은 아니다. 에바는 남편과 남편의 행동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어디를 갔었지? 누구와 이야기했을까?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남편의 외설물과 성탐닉 문제는 에바의 삶의 중심을 차지해 버렸고, 에바는 자신이 남편의 문제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두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으며, 직접 남편의 문제를 고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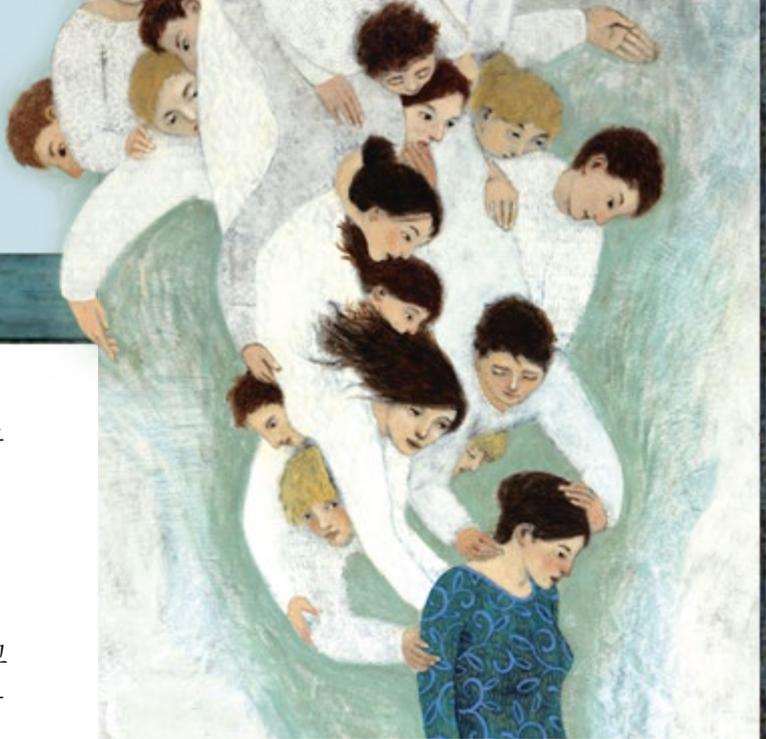
제이미의 경우, 제이미는 남편이 외설물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당연한 소망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 존의 생활을 정리해 주고 할 일을 정해 줄 수 있다면 남편이 외설물을 통한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따라서 남편이 옳은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이미는 남편이 할 일을 매일 목록으로 만들었다. 거기에는 남편이 쉴 때나 기분 전환용으로 할 일들과 더불어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감독이 영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을 때, 제이미의 생활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자매님, 이건 자매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외설물을 보는 것은 자매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있을 뿐이죠.” 남편이 외설물을 보는 것이 제이미 탓이 아니듯이, 제이미 역시 그 일을 중단하는 일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사실 제이미는 감독이 말한 바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독의 말을 들은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목록 작성을 중단했죠. 애써 남편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옳은 일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두었어요. 대신 저 자신에게 몰두했습니다.” 실제로 제이미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데 힘썼다.

제이미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존은 어려움을 겪고 종종 외설물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으나, 그는 점차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치유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존과 제이미는 개인으로서, 또 부부로서 더 잘 치유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도, 배우자는 가족, 친구, 교회 지도자, 전문가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필수 행동 2: 안심하고 함께 나눈다

필요에 따라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해와 도움과 지지를 얻기

제이미와 존이 자녀들 중 한 명에게 축복을 해야 했을 때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다. 두 사람이 가정 복음 교사에게 전화했을 때, 그 가정 복음 교사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외설물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찾아 축복을 부탁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의 그러한 솔직한 태도 때문에 존과 제이미는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으며, 마침내 존은 자신의 중독 문제를 제이미 외에 다른 사람과 상의해도 되겠다는 안도감을 느끼고는 그렇게 했다.

그 가정 복음 교사의 아내가 제이미에게 그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누자고 제의했을 때, 제이미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다. 당시 제이미의 목표는 남편을 고치는 것이었고, 그 자매와의 대화는 남편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정 복음 교사의 아내와 만나자, 제이미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변화된 것은 없었다. 존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제이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알아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그리고 주위의 세계가 송두리째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꼈다.

필수 행동 3: 영적 확신을 재정립한다

성신을 느끼고 그 속삭임에 따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에이미는 남편의 파문을 접했을 때, 짓눌리는 심정에 구주께서 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제가 있는 곳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다고 느꼈고, 어떻게 그쪽으로 건너가야 할지” 확신하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에이미는 그곳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어떻게 찾거나 세울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남편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주님께 고쳐 달라고 간청하며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키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영적 느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누군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속한

것이 아니며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에이미는 자기가 해야 했던 가장 큰 일은 스스로 자신만의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고, 남편의 여정은 남편에게 맡기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에이미는 영을 통해 오는 영감으로써 이해하게 되었다. 남편의 외설물 사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축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속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에이미는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남편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고 조사하던 동안에는 어떤 평안의 느낌도 받아 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말한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찾은 유일한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과 저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을 수 있었죠.” 에이미가 자신의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자 “도움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기의 고통과 구주의 도움 사이의 골을 그다지 넓게 느끼지 않게 되었고 고통도 그리 무겁게 느끼지 않게 되었다.

필수 행동 4: 도움을 받는다

문헌이나 자료, 자격을 갖춘 치료사, 조연자, 또는 입증된 치유 프로그램과 같은 자원을 통해 치유로 향하는 길 찾기.

결혼한 지 25년이 지나서야 지나는 남편의 외설물 사용과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충격을 받은 지나는 감독을 찾았다. 곧이어 지나는 자신의 감독이 이해심 많은 경청자임을 알았다. 감독은 때로 필요할 때면 그녀가 울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축복이었다.

지나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배우자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나는 첫 모임 중 한 모임에서 감독이 이야기한 권고를 기억하고 있다. “[감독님께서] 제 결혼생활이나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어려움을 직면하는 동안 제가 든든한 도움을 받으도록 즉시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길 바랐지만, 필요할지도 모르는 소양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시고는 의사에게 이야기해서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받으라고 권고하셨죠.”

그 후 몇 년 동안 지나는 지원 단체 모임 및 상담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으며, 때로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족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가족의 도움을 구했다. 지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절대로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필수 행동 5: 마음을 열고 솔직해진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하되 티놓고 솔직하게 진정한 태도로 이야기하기.

멀리사는 서로 동떨어져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듯한 결혼생활을 되살리도록 한 번 더 노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는 남편 캐머런이 외설물에 빠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의 일이다. 남편은 아내의 간청을 받아들여 감독에게 이야기하는 데 동의했고,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부모에게도 그 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캐머런의 말에 따르면, “2년이 지난 후에야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 사람에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외설물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진정 회복의 상태에 머무려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외설물을 보고 싶은 욕구를 부채질했던 스트레스, 두려움, 수치심, 걱정 등에 대처할 건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외설물을 떨쳐내지 못하자, 캐머런은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으며, 시간이 흐르자 구주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자마자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12단계 프로그램에 참석함으로써 마침내 멀리사는 가족이 앞으로 나아갈 도구를 갖게 되었다고 느낀다. 그녀는 12단계로 된 모임이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기억한다. 그렇지만 진행자가 다음과 같이 제의하자 동기를 부여받았다. “저희와 석 달만 함께해보세요. 석달 뒤에도 맘에 들지 않으면 자매님이 겪던 고통을 그대로 환불해 드릴게요.” 마침내 멀리사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느꼈듯이, 자신의 경험도 다른 사람이 희망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사는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걸로만 행복한 척하는 것일 뿐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녀 자신과 캐머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자 그런 시각은 바뀌었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신 구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자 그분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셨다. 멀리사는 말한다. 이제는 구주 덕분에 살아 있음이 행복하고, 그런 행복에서 나오는 진정한 미소를 지으며 웃을 수 있다고 말이다.

필수 행동 6: 경계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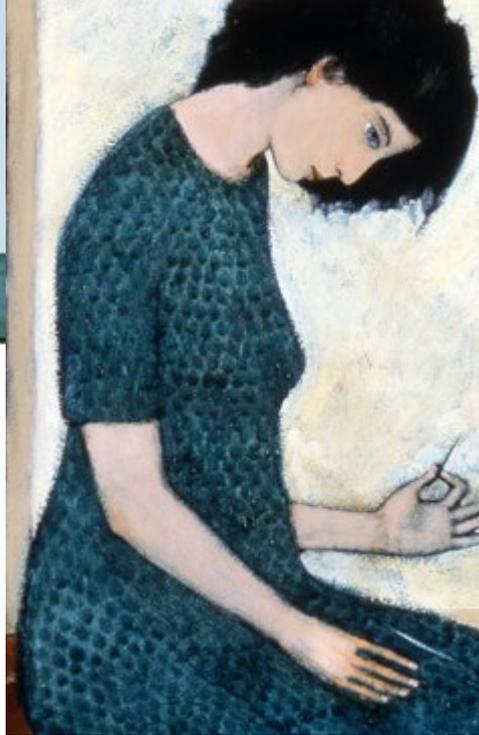
외설물 사용자와 적절한 경계를 정하여, 정상적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게 하고 치유로 이끄는 체계 확립하기.

외설물을 극복하려는 여정을 시작한 뒤 얼마 후, 존과 제이미는 경계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았다. 두 사람은 외설물을 끊은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계가 제공하는 마음의 평화 덕분에 그렇게 하고 있다. 제이미는 경계를 정함으로써 가장 나약해지고 상처받기 쉬웠을 때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와 존은 재발을 둘러싼 문제들을 토론할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있다는 데 동의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다툼”을 피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론이 논쟁으로 비화하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

존과 제이미가 정한 경계는 대부분 소통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지만,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존과 제이미가 동의한 것들을 조건문 형식(만일 ~하면, ~한다는)으로 구성하여 정한 경계들도 있다. 그렇게 하니, 남편과 자신 모두 삶이 그다지 혼란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제이미는 말한다.

기도, 경전 공부, 성전 참여는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가 구주의 치유 권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단 것은 시련이 모두 끝나고 지나간 후가 아니라 그 시련 한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맛보게

필수 행동 7: 자기 관리를 실천한다

몸과 마음과 영을 치유하고 살지게 하는 일과를 날마다 행하기.

지나는 감독과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감독이 틀에 박힌 대답처럼 보이는 몇 가지 일을 하라고 권고하던 때를 기억한다. “감독님은 저에게 성전에 가고, 경전을 읽으며, 기도를 계속하라고 온화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후 힘들었던 몇 해 동안, 지나는 그 “틀에 박힌 대답”이 자신을 돌보는 방편임을 알게 되었으며, 경전은 안식처가 되었다. “성구를 읽다가 종이에 쓰고, 그것이 제가 처한 상황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려 애썼죠. 그런 후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적곤 했어요.” 지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더욱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경전을 한 번에 한 구절씩 읽다 보니 무언가가 이해되더군요.”

마찬가지로, 기도와 성전 참석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제 온 마음을 쏟아 기도드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당신께서 말씀하실 차례예요’ 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다음 조용히 기다리며 귀 기울였다. 지나는 “가장 암울한 시간에도 영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한다.

희망을 품고 생활하기

치유의 여정은 개인마다 다르며, 각 여정은 하나의 과정이지 종착지는 아니다. 그러나 여러 이야기에서 공통되는 것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외설물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그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빈도나 탐닉하는 정도에 상관없이, 외설물에 관여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비통한 심정, 배신감에서 오는 정신적 충격, 거부감, 수치심, 자존감에 대한 상처 등을 경험하게 된다. 외설물 사용은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유대감, 신뢰, 소통을 파괴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배우자가 희망과 치유를 구할 때 필수적이다.

또 공통되는 것은, 이 쓰라린 경험을 하는 동안 배우자들이 쓴 것에 반대되는 단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그

된다는 사실이다.

지나는 현재 이혼하여 자신과 자녀의 치유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따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그들도 희망을 찾도록 돕고 있다. 멀리사와 캐머런은 결혼 상태를 유지하며 회복을 위해 계속 애쓰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제이미와 존 역시 구주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얻은 치유를 다른 부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활발히 돕고 있다.

에바는 이혼하여 12단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그 모임을 통해 자신의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안전과 지지를 찾고 있다. 그녀의 삶은 한때 남편의 중독에만 온통 얽매어 있었으나, 구주를 자신의 삶과 노력의 중심으로 삼게 되면서 치유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에이미는 남편의 중독이 계속 재발하는 가운데서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에이미는 연차 대회를 시청할 때 “남편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에 초점을 맞추고 대회를 시청하니 평안이 찾아온다고 간증한다. 아울러 속죄의 무한한 속성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권능이 남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안다.

외설물에 영향을 받은 한 자매가 한 다음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더 열심히 노력해 보라고 하시기보다, 더 속히 그분께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이 일곱 가지 필수 행동은 그렇게 하려는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 ■

열두 가지 진리

일곱 가지 필수 행동에 힘쓰는 것 외에도, 외설물에 관여한 사람의 가족들 중 상당수는 교회의 중독 회복 프로그램 자료에 나오는 다음 열두 가지 진리를 살펴봄으로써 희망과 치유를 얻기도 한다. 이 자료와 배우자 및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ddictionrecovery.lds.org를 참조한다.

1. 하나님은 “*너희의 고난의 때에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요.*”(야곱서 3:1) 외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처지를 알고 계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고난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면 위안을 얻을 수 있다.
2.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떨쳐 버리*”라.(니파이후서 1:23)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책임이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중독에 대해 비난받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본성과 운명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유로이 스스로 행하고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선택을 내린다는 것을 안다.
3.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앨마서 7:11)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동안 그분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을

-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또 복이 달아나지 않으며,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안다.
4. “*내게 가까이 오라.*”(교리와 성약 88:63) 주님의 도움은 필수적이며, 우리는 성찬을 취하고, 성전에 참석하며, 성령의 동반을 구함으로써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5.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몰몬서 9:27) 우리는 누군가를 통제하여 그 사람의 중독을 치유하지는 못하나, 우리 자신의 치유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중독에 관해 공부함으로써 이해를 키울 수 있다.
 6.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하*”라.(모사이아서 18:8) 주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가족, 친구, 신권 지도자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 조연자, 지원 단체 및 전문가의 도움을 비롯한 적절한 도움을 구해야 한다.
 7. “*범사에 감사하라.*”(교리와 성약 98:1) 우리는 낙담, 두려움, 분노에 사로잡히는 동안에도 우리 삶에 임하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중독에 빠진 사랑하는 이의 좋은 점과 선함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다.
 8.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라.(힐라맨서 15:8)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한계를 정하되 어떤 종류든 학대의 행위는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9.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자.(고린도후서 4:2) 외설물 사용은 은밀히 진척되므로, 오직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어 솔직하게 소통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시작할 수 있다.
 10.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라.(교리와 성약 81:5)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며,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11. “*이 모든 일을 인내로 참*”으라.(앨마서 38:4) 회복은 하나의 과정이다. 치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발이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사랑과 희망을 품고 이에 대처할 수 있다.
 12.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한복음 14:27) 약속을 깨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으며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19 73년, 몇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몹시도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나는 성경을 읽기로 마음먹었다. 역대하 2~5장에서 솔로몬 성전에 관하여 읽던 어느 날, 그런 거룩한 장소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성신의 인도로 그곳을 찾게 되기를 바라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성전을 찾으면 주님의 종에게 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성전을 찾으러 나섰다. 나는 당시에 살던 파리 근교의 폰트네수부아를 출발하여, 성전을 찾아 파리를 향해 차를 몰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회와 회당 등 그 많은 건물 속에서도 성전은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도하면서 왜 성전을 찾을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충분히 순수하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성전을 찾아서

거룩한 장소를 찾던 끝에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였을까?

1980년 2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자매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찾아올 무렵까지도 성전을 찾으러 나섰다. 그냥 돌아왔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가장 가까운 성전은 스위스 출리코펜에 있는 스위스 베른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1980년 4월 12일에 침례를 받았고, 일 년을 막 넘긴 1981년 5월 5일에 처음으로 성전에 갔다. 그곳에서 나는 가족 중에서도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이모와 고모들, 사촌들을 포함해 여러 여성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올가는 그중 유일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이탈리아 출신의 올가는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불행히도 그녀의 남편은 폭력적인 데다가 그녀에게 충실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올가는 다섯째 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 아버지와 오빠의 도움을 받아 탈출을 결심했다.

그리고 집을 나와 부모와 오빠와 함께 살러 갔지만 아이를 낳은 후 사망했다. 올가의 부모는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했다.

올가를 위해 성전에서 의식을 받는 동안 한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선교 사업이라는 말이었다. 어리둥절했다. 당장 혼자서 세 아이를 기르기도 바쁜데 어떻게 선교 사업을 나간다는 말인가.

그런데 몇 달 뒤에 답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사촌 렌조가 올가의 어머니인 아니타 숙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했다. 불현듯 내가 올가를 위해 성전 사업을 마친 것이 화요일이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 주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올가는 영의 세계에서 어머니를 맞이하여 가르치기 위해 아주 간절히 성전 의식을 받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아마도 내 머릿속에 맴돌던 말은 올가의 선교 사업을 뜻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나도 우리 부모님을 돕기 위해 선교 사업을 해야 했다. 나는 수차례 부모님께 교회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최대한 서둘러 부모님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부모님이 인봉되실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랑의 눈물이 흘렀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부모님께 인봉되었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던 나는 어머니 대신 의식을 받아 주신 자매님을 안아 드리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머니를 대신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자매님도 눈물이 그렇그렇한 눈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고맙다고 하셨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 다음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의 부모님께 인봉되었고, 내가 대리하여 의식을 받았던 올가는 그녀의 부모인 마리노 삼촌과 아니타 숙모에게 인봉되었다.

그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감정이 복받친다. 올가를 생각하며, 그녀가 휘장 저편에서 자신의 선교 사업을 완수하고 있기를 소망한다. 성전 의식 덕분에 이제 나는 우리 가족 중 유일한 회원이 아니다. 부모님은 당신들을 위해 행해진 의식들을 받아들여셨을 것이다. 정말 기쁘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축복을 마련하시어 내가 영원한 가족을 이루도록 길을 열어 주셨음에 감사드린다. ■

글쓴이는 프랑스 오베르뉴론알프에 산다.



가족 역사와 성전 축복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그리고 루스 엘 렌런드와 애슐리 알 렌런드





2016 루츠텍(Roots Tech)에서 발표하는 동안, 데일 지 렌런드 장로와 그의 아내 루스 및 그의 딸 애슐리는 가족 역사와 성전 축복을 하나로 묶을 때 진정한 힘이 임한다는 점을 후기 성도들에게 강조했다.

렌런드 장로: 1963년 12월, 우리 가족은 헬싱키에서 여섯 시간을 운전해서 핀란드 서해안에 있는 라스모 섬으로 갔었습니다. 그곳은 제 아버지가 자라신 곳이고 제 할머니인 레나 소피아가 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훨씬 전인 1912년에 제 할머니 레나 소피아와 할아버지 리엔더 두 분은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스웨덴에서 온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합친 수가 800명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회복된 복음을 가르쳤고, 제 조부모님 두 분은 바로 다음 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은 핀란드에 처음으로 조직된 작은 지부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두 분이 함께 모시고 살았던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1917년에는 리엔더 할아버지 또한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레나 소피아 할머니는 열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계신 상태로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그 때 태중에 있던 아이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달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레나 소피아 할머니는 열 명의 자녀 중에서 일곱을 저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그들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남은 가족을 지키는 일은 가난한 시골 여성이었던 제 할머니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거의 20년 동안 밤에 휴식다운 휴식을 취해 보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허드렛일을 열심히 해서 먹을 음식을 겨우 장만하셨고, 밤에는 병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돌보셨습니다. 죽음은 늘 가족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장작을 패서 지붕 서까래에 넣어 말렸는데, 그 목재로 죽은 아이들을 넣을 관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정이 어땠는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1963년에 제가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막 11살이 되었고 할머니는 87세이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의 노동으로 허리가 굽으셨었는데 너무 많이 굽으셔서 의자에서 일어나셔도 키가 거의 같을 정도였습니다. 갖은 풍상을 겪은 얼굴과 손의 피부는 닳아빠진 가죽처럼 질기고 거칠었습니다.

할머니는 최대한 몸을 일으키시고는 벽에 걸려 있는 할아버지 리앤더의 사진을 가리키시며 내게 스웨덴어로 “*Det här är min gubbe*”, 그러니까 “이분이 내 남편이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 가을 저는 스웨덴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스웨덴어를 다시 배우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분이 내 남편이란다”라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할머니가 시제를 잘못 사용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앤더 할아버지는 46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는 할머니가 “이분이 내 남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느냐고 어머니께 여쭙봤습니다. 어머니는 “그건 아직 네가 잘 몰라서 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러 차례 그 경험이 주는 의미를 생각했고 제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상고했습니다.

레나 소피아 할머니가 인봉의 권능에 대해 알고 계셨기에 받았던 힘과 위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능은 우리가 조상에 대해 연구하고 배울 때 구체적인 방향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족 역사와 성전의 축복은 모두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것들이지만, 진정한 힘은 그 둘을 하나로 묶을 때 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두 가지를 섞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끌고 인도하게 됩니다. 자신과 남편을 위해 이 의식들이 언젠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할머니 혼자서 그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도 위안과 화평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 역사의 진정한 가치

애슐리: 가족 역사가 없다면, 인봉의 권세가 정말 쓰일 필요가 있는 곳에 쓰일 수 없을 거예요. 또한 가족 역사의 진정한 가치는 인봉 권세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어요.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힘이 임하게 돼요.

렌런드 자매: 그 개념이 맘에 들어요. 우리는 경전 여러 곳에서 이 두 가지 각각의 축복에 대해 배우지만, 그 둘을 하나로 묶을 때 우리 삶에 더 큰 축복과 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경전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죠.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어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를 통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킬 것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 당신의 할머니가 당신의 마음에 심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뒤 주님께서는 이 “돌이킴”이 없으면,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고 하셨죠.(교리와 성약 2:2~3 참조)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보 기록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갖고 있다 해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회복된 인봉의 권세가 없다면 창조의 목적은 좌절되고 “황폐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신 첫 번째 메시지들 중 하나죠.

렌런드 장로: 맞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내 인생 전반에 걸쳐 내 할머니를 비롯한 조상들의 이야기와 모범에서 힘과 권능을 느끼고 있었어요.

교리와 성약 128편에는 조셉 스미스가 말라기 4장 5~6절을

인용한 예언이 있는데 그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에 대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인봉의 권세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결코 드러나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온 것들이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드러나리라.(교리와 성약 128:17~18 참조)

생각해 보십시오! 조셉 스미스는 세상의 학식 있는 남녀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일 이 축복에 참여하면서 이 개념들을 배우고 습니다. 제가 열한 살 때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구주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이생에서 그런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과 똑같은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이런 기회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 의식과 개인의 권능

렌런드 자매: 성전 의식은 개인적 권능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개인적 권능의 예를 보여 주셨어요. 초기 성도들은 구원 사업을 전진시키기 전에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받았죠.

“나의 장로들이 시온의 구속을 잠시 동안 기다리는 것이 내게 필요하도다.—

이는 그들 자신이 준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나의 백성이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고 경험을 쌓으며 그들의 의무와 내가 그들의 손에 요구하는 것들에 관하여 더욱 온전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일은 나의 장로들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기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05:9~11)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그들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계세요. 또한 이 축복으로 인해 성도들은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더 온전히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죠.

렌런드 장로: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문인 109편을 계속

읽어 보면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주의 집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올 모든 백성이 당신의 권능을 느끼고, 당신께서 이 집을 성결하게 하셨고 이 집이 당신의 집이요 당신의 거룩함이 깃든 곳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느낌을 받게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109:13)

애슐리: 네, 성전 의식은 정결하고 강력하죠. 조상들에 관해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성전을 포함시킬 때 어떻게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고 더 높은 단계의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렌런드 자매: 데일, 레나 소피아 할머니가 남편인 리앤더 할아버지에 대해 당신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에게 남편과 가족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성전 권능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이해를 얻으셨겠죠?

렌런드 장로: 물론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레나 소피아 할머니는 오래전에 죽은 남편이 영원토록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원한 가족이라는 교리를 통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삶과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의 일부로 계속 존재했던 거예요. 레나 할머니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히브리서 11:13)

인봉 권세에 대한 불타는 신앙으로, 1938년에 레나 소피아 할머니는 8세 이후에 세상을 떠났던 당시 자녀들의 기록을 제출하셨습니다. 비록 할머니 자신은 살아생전에 성전에 가실 수 없었지만, 그 자녀들의 성전 사업은 그렇게 수행되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핀란드에서 의식을 위해 성전에 제출된 최초의 기록들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2014년 루츠텍(RootsTech)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이 주신 목표를 기억하시나요?

애슐리: 그분은 “성전에서 행한 침례 의식 횟수만큼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하도록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죠.¹

렌런드 자매: 2015년에 그분은 그 도전 과제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라는 말을 덧붙이셨어요.²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렌런드 장로: 맞아요. 저는 사도님의 이러한 권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계속 키워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대화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우리가 이 약속에 영적 권능의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을 읽어 봅시다.

“그[천사]가 나[에스겔]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에스겔 47:1~5, 8~9)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곧 성전에서 흘러나와 가족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애슐리: 물이 흘러나갈수록 더 깊어졌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렌런드 장로: 나(한 사람), 내 부모님(두 사람), 내 조부모님들(네 사람)을 생각해 보고, 그 위로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아래쪽으로도 말이죠. 강이 깊어지는 것은 우리 가족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전 축복은 모든 것에, 그리고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충분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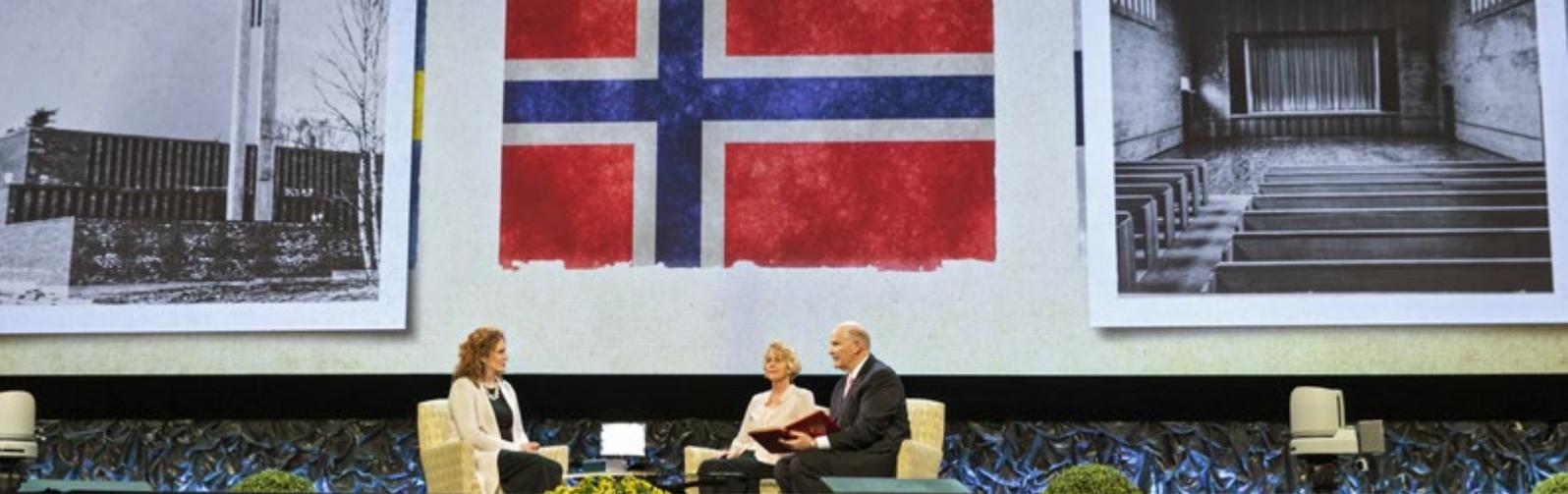
렌런드 장로: 주님께서는 레나 소피아의 개인적 불운, 우리의 상실, 여러분의 비극, 사실상 모든 사람의 재난을 극복할 계획을 마련하셨고, 지상에 그분의 신권과 인봉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레나 소피아 할머니는 그것을 아셨고, 제 어머니 마리아나도 알고 계셨죠.

렌런드 자매: 당신 어머니가 성전 사업을 위해 소피아 할머니의 이름을 어떻게 성전에 제출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애슐리: 저는 그 일화가 참 좋아요. 레나 소피아 할머니가 1966년에 돌아가신 직후, 마리아나 할머니는 그분의 이름을 계보 센터에 가지고 가셨죠.³ 카운터에 있던 형제는 할머니에게 교회 정책상 사망한 지 최소한 1년이 지나야 그 사람에게 대한 성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려 주셨어요. 그 말에 마리아나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네요. 다른 담당자와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분은 충분히 오래 기다리셨다고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이성적으로 설득해 보려 했으나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는 바로 알아차리셨죠. 말을 더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 뻔하다는 것어요. 할아버지는 그분의 일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일 년이 지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 그 사람에게 미안할 지경이었다. 그 남자는 그저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다. 내가 말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가 묻지 않았기에 굳이 말해 주지는 않았다.”⁴

렌런드 장로: 그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교회 회장의 승인 하에 레나 소피아 할머니와 리앤더 할아버지의 성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리아나 할머니와 오키 할아버지의



대리 의식을 통해 레나 소피아와 리앤더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습니다. 교회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은 거리상의 문제로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의 경우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따라서, 레나 소피아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최대한 빨리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할머니가 계보 센터의 그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그분들은 이미 “충분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렌런드 자매: 당신 가족에게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어요! 당신 조부모님의 자녀들이 느낀 기쁨은 말할 것도 없이, 리앤더와 레나 소피아, 그 두 분이 느꼈을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이 함께 이루어질 때 오는 축복의 정점이며, 이 둘의 결합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권능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이 권능에 대해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성전과 가족 역사라는 두 가지 신성한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오는 축복에 대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역사는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 이어서 성전에 가서 의식을 받습니다. 그 두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조상들을 찾고 그 가족들의 이름을 직접 주님의 집으로 가져갈 때 거기에는 권능이 깃듭니다. 저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 우리는 훌륭한 느낌을 느끼지만, 우리 자신의 돌아가신 친족들을 위한 가족 역사 사업을 수행하여 그분들에게 의식을 집행해 줄 때는 더욱 훌륭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⁵

애슐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 또한 우리가 이 권능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은 휘장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가족들의 승영을 돕는 것입니다.”⁶

보호의 약속

렌런드 장로: 오늘 그분들의 간증에 제 간증을 더하여 성전에 관련된 이 축구를 지지하는 또 한 사람의 사도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어졌던 그 보호의 약속을 다시 여러분께 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축구를 받아들여, 성전에서 여러분이 의식을 받는 수만명의 이름을 찾고, 그것을 성전으로 가져가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보호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축구를 받아들인다면, 에스겔이 말한 강의 힘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축복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칠 때, 그 강은 더욱 불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힘, 즉 변화할 힘, 회개할 힘, 배울 힘, 성결하게 되는 힘,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이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치유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

2016년 2월 6일에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016 Roots Tech 가족 역사 대회에서 발췌함. 모든 발표 자료는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lds.org/go/217Renlund에서 볼 수 있다.

주

1. 닐 엘 앤더슨, “성전과 기술이 있는 ‘내 날들’”, *리아호나*, 2015년 2월호, 31쪽.
2. 닐 엘 앤더슨, 라이언 모게네그 제공, “루츠테크 2015: 앤더슨 장로가 성전 도전 과제에 추가하다”, <https://www.lds.org/church/news/elder-andersen-adds-teaching-others-to-youth-temple-challenge?lang=kor>.
3. 현재의 가족 역사부.
4. Mats Åke Renlund, “Reflections,” personal journal, 119.
5. David A. Bednar, in “The Turning of Our Hearts” (video), lds.org/topics/family-history/turn-our-hearts.
6. 러셀 엠 넬슨, “사랑으로 연결된 세대”,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93쪽 참조.



나는 감독님의 조언대로 벌금을 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선교사 기금을 모으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했다.

성화: 앨런 칸스

선교사 기금으로 모은 돈을 포기하다

스물한 번째 생일을 앞두고 교회에 들어온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바람은 컸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신 뒤 나는 어머니와 세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었다. 버는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들어갔다. 당시에는 선교 사업을 나가려면 적어도 500파운드(약 77만 원)가 필요했다. 2년 동안 저축을 했지만 내 수중에는 250파운드뿐이었다.

금전적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던 중, 남동생이 사고를 내서 24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하게 되었다. 가족들은 내가 가진 돈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동생에게 빌려 주라고 부탁했다. 동생은 여력이 되면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내게는 선교 사업과 동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 같았다. 고민 끝에 나는 감독님께 조언을 구했다. 감독님은 동생을 돕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나는 감독님의 조언대로 벌금을 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간절히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

돈을 다시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던 터에 나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장래에 관한 느낌을 받았다. 영은 동생이 돈을 갚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내가 내년에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되리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게다가 동생에게 준 돈을 모으는데는 2년이 걸렸는데, 주님은 연말이면 그 두 배의 돈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의아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갔고, 다음 10주 동안 매주 기적이 일어났다. 먼저, 내가 선교사 기금을 써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와드의 한 청년 독신 성인이 선교사 비용으로 쓰라며 나에게 100파운드를 주었다. 그다음 주에는 다른 독신 성인이 똑같은 이유로 100파운드를 주었다. 나는 겸손해졌고 내게 주어진 느낌을 믿지 않았던 일을 회개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내가 일하던 곳의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고용인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을 권고하셨다. 나는 퇴직을 자원하면서도 회사에서 나를 훈련하느라 워낙 큰돈을 들였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관리자는 명예퇴직을 원하는

이유를 물었고, 나는 선교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임금을 인상하여 여러 주 분을 소급해 주었고 사표도 수리해주었으며, 명예퇴직 수당에 상여금까지 얹어 주었다.

그런 뒤 임시로 일할 곳이 생겼는데, 그 자리는 2주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주말에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매주 토요일에 근무를 더 하기로 했다. 얼마 후 선교사 신청서를 제출한 나는 영국 런던 브리스틀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때까지 일 년이 채 안 되어 모인 돈은 모두 2,500파운드였다. 글자 그대로 내가 준 금액의 10배를 받은 것이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신앙을 행사하여 감독님의 권고에 순종했기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

프레드릭 존 홀트, 영국 웨스트서식스

성화: 조슈아 데니스

성찬식에서 찾는 평안

활 발하고 요구가 많은 다섯 아이를 돌보는 일이 우선이던 젊은 시절, 나는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평화로운 순간을 찾고자 노력했다. 여기서 5분 저기서 10분이 내가 짜낼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 고요한 자투리 시간이 내겐 참 소중했다.

나는 자주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힘과 인내, 평안을 구했다. 일요일은 특히 바빴다. 젓먹이를 돌보고,

조금 더 큰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그보다 더 큰 아이들에게 교회 갈 준비를 시키려면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해결책을 찾은 것 또한 그렇게 바쁜 일요일이었다.

어느 날 성찬 기도문을 듣고 있는데, 기도문의 말씀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20:77)

주님의 영광 함께할 자격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어떻게 그때까지 한 번도 그 약속에 담긴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았으면 소란스럽기만 했을 내 삶에 성찬식은 조용한 사색의 시간이 되었다. 나는 성찬 의식에서 그동안 찾던 평안을 찾았다.

비록 빵과 물을 취하고 나면 가만있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야 할지언정, 나는 그 특별한 기억의 시간 동안만은 꼭 자리를 지키려 했다. 그리고 전에 없이 열성적으로 그 소중한 순간들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제는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얼마든지 조용한 시간의 사치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찬을 취하는 그 순간은 내게 참 소중하다. ■

제인 맥브라이드, 미국 콜로라도 주

어떻게 그때까지 한 번도 그 약속에 담긴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



그리스도의 위로하는 권능

몇년 전, 친구인 조셉이 자동차로 미국 유타 주를 출발하여 워싱턴 디시까지 여행을 하겠다고 계획했던 적이 있다. 조셉은 나에게 여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교회의 다양한 유적지를 돌아보며 동부 해안까지 이르러 뉴욕 시로 차를 몰았다.

당시는 2001년 9월 11일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막 2주가 지난 후였다. 우리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곳에 가 보아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곳에서는 한 군인이 봄비는 거리를 거닐며 잔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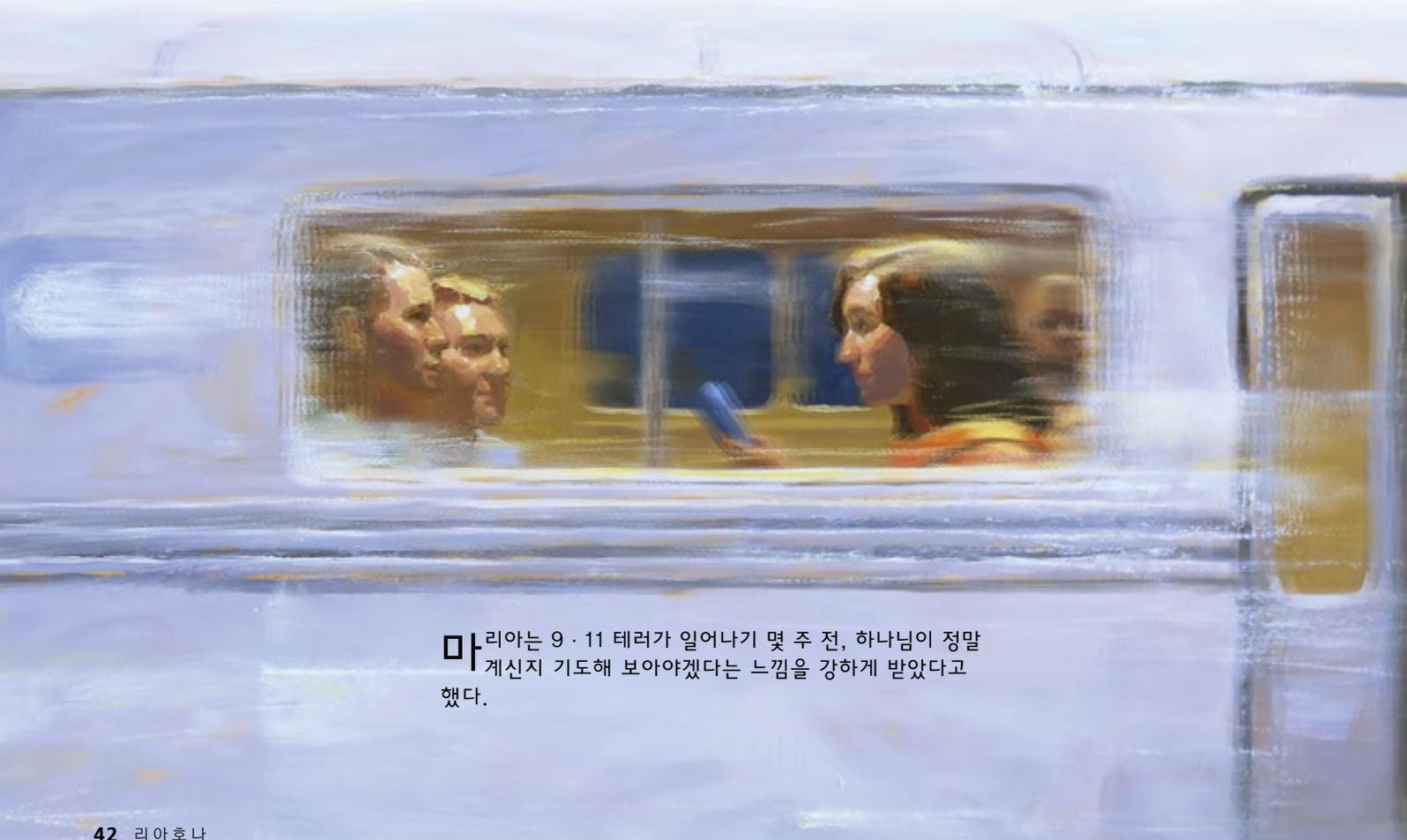
땀을 화장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조셉과 나는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고, 우리도 거기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나누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이 섰다.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지하철을 탔다. 맞은편에는 한 여성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내 소개를 한 뒤 뉴욕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을 건넸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9·11 테러와 관련하여 그녀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수십 년간 뉴욕 시에 살았으며, 쌍둥이 빌딩에서 겨우 몇 블록 떨어진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9·11 테러가 일어나기 몇 주 전,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지 기도해 보아야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살아오면서 그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기도를 한 적이 많지 않았으며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마리아는 9·11 테러가 일어나기 몇 주 전,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지 기도해 보아야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했다.

편부모를 위한 주님의 가르침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 아침에 테러범들이 쌍둥이 빌딩을 공격하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의 기도 응답을 느꼈다. 마리아는 혼돈과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불현듯 마음이 침착해지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평안을 느끼면서, 그녀는 모든 것이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살피고 계심을 느꼈다고 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그녀에게 그녀가 특별한 평안과 위로의 형태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느꼈던 것이고, 기도하고 몰몬경을 연구함으로써 그분을 찾는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몰몬경을 한 권 건네며, 이 책을 읽으면 그녀가 바라던 대로 항상 평안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몰몬경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고마워했다.

조셉과 나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려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분이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염려하시며, 우리 주변에서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을 때는 특히 더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당신의 영에서 비롯된, 형용하기 어려운 평안을 주실 것이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나 비극도 그리스도의 빛을 막을 수는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겨 내셨기 때문이다. ■

크리스 디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가 20대 중반에 혼자서 네 아이를 기르며 휘청이고 있으리라는 건 상상조차 못해 본 일이었다. 고교를 졸업 후 나는 대학은 생각도 못해 보고 조그마한 집에서 네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어린아이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답을 얻은 것은 며칠, 혹은 몇 달 후가 아니었다. 몇 년에 걸쳐 영의 속삭임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야 나는 답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도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당연히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뚜렷한 응답이 느껴졌다. “학업을 시작하라.” 재정적인 책임을 벗을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의아해하면서, 나는 부모님과 감독님께 이야기했다. 다들 진학하는 것이 맞다는 데 동의하셨고, 나는 몇 주 뒤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등록했다. 그리고 특수 교육 자격증과 함께 초등 교육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교사가 되어서도 커 가는 아이들에게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모두 채워 줄 만큼 여유롭지는 않았다.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고 계속 주님께 간구했다. 감독님은 접견을 하시면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여 석사 학위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해 본 뒤, 나는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다.

그리고 몇 년 후, 또다시 학교로 돌아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필요한

시험 일정을 잡고 교육 행정 프로그램을 위해 면접을 본 뒤 지역의 다른 대학에서 다시 한 번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학업을 마치자 새 일자리가 들어왔고, 거기서 새로운 관계들이 생긴 덕분에 삶이 풍요로워졌으며, 나는 개인적으로 성장했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성전에 가서, 노력을 하는데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되어 좌절감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주님께 기도하던 터였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내가 스스로 노력했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우리 가족에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 모두 충족되었으며, 내가 순종하는 한 그분이 돌보아 주시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서 20장 4절이 떠올랐다. “주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학업을 마치도록 영감을 주시고 그리하여 내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 정말 감사하다. 또한, 그동안 주변에서 그토록 우리를 배려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면 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배웠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후하게 베푸는 법도 배웠다. ■

수잔 케이지, 미국 유타 주

불완전함

속에서 찾는 평화

엘리자베스 로이드 런던
LDS 가족 서비스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겪는 불완전함 중의 하나는 바로 완전함에 대한 개념이다. 흔히 사람들은 구원받거나 승영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생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언젠가 상담을 받으러 왔던 한 여성은 내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울 만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이야기했다. 그런 느낌에 대해 찬찬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그녀가 과거나 현재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았다. 단지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웃, 친구, 친척 등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과 비교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부름을 행하거나 자녀를 기르면서,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불완전한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곧잘 재능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지며 낙담,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을 느낀다.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자기가 지닌 진정한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 예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탄은 성도들을 절망, 실의, 낙담, 우울 등으로 억누르기 위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¹ 다행스럽게도, 칠십인 정원회의 데브 제이 코니쉬 장로가 가르친 대로, “우리에 관한 [의견들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뿐”이다. 코니쉬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을 다해 그분께 여쭙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완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바로잡아 주실 뿐, 절대 낙담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²

불완전함은 기회다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기쁨을 갖기 위함이며, 우리가 창조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기쁨의 일부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점이 있으나 살아가면서 배워 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지닌



심화: 양미자, 존스: 비틀기 그림 © PHOTOMASTER/SHUTTERSTOCK

불완전함 또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완전함을 기대한다는 것은 성장할 기회를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것은 회개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속죄 권능을 삶에서 거부하는 것과도 같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완전해야만 하고, 모든 법을 엄격하고 완벽하며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한다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심지어 무덤 너머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가르쳤습니다.”³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방편으로 삼으시어 우리가 당신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있다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려면 겸손해야 한다. 이터서에는 이 과정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터서 12:27) 우리가 겸손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서 배우도록 기꺼이 도와주실 것이다. 신약전서에는 그 본보기가 잘 드러난다. “육체의 가시”로 고생한 바울은 이러한

연약함 덕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린도후서 12:7 참조) 이런 겸손과 배우려는 의지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 적용해야 할 덕목이다. 우리는 이러한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약점에서 배워야 한다.

또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다르다. 겸손은 우리를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반면, 수치심과 죄책감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깎아내리기를 바라지 않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찮은 존재라고 느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모두 고통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는 것이다. 약점을 바꿀 방법을 찾는 것은 지상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약점 중에는 평생 씨름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몇 년 전, 음주 문제를 겪던 레이첼(가명)이라는 내담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에게 술은 고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버팀목이자 수단이었다. 그녀는 중독을 극복하겠다고 마음먹고 어느 정도의 도움과 격려 속에서 술을 끊었다. 음주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에 앞서, 그녀는 약점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약점을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훌륭한 감독, 주님, 그리고 몇몇 중요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굳은 마음으로 술을 끊겠다고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만나던 날, 레이첼은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약점을 이기고 성장하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바라고 이해하는 상태에서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마음이 약하고 두려우시다면,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완전함은 이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 옵니다. 지나친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는 동안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이 바꿔 주실 것입니다.”⁴

지금 행복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순간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심지어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선택할 수 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유대인 대학살의 생존자인 빅터 프랑클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서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 즉 최후의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자신이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이다.”⁵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고 한다.(니파이후서 2:25)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마법처럼 우리 삶을 행복으로 채워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하려면 감사하고, 신뢰하며, 신앙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습해야 한다. 우리가 허용하기만 한다면 삶은 온통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질 수도 있다. 삶에서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돛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기를 빕니다.”⁶

선한 것에 집중하는 편을 택하고, 주님과 그분의 속죄에 의지하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불완전함에서 배울 때, 우리는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선하고 행복한

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며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위안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고자 불완전한 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주

1. 에즈라 테프트 벤슨,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빛, 1987년 3월호, 4쪽.
2. 데본 제이 코니쉬,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내가 해의 왕국에 갈 수 있을까?”, 리야호나, 2016년 11월호, 33쪽.
3. Bruce R. McConkie, “The Seven Deadly Heresies”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June 1, 1980), 6-7, speeches.byu.edu.
4. 러셀 엠 벨슨, “사람들이 기절하리니” (동영상), lds.org.
5.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1959), 86.
6.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리야호나, 2012년 1월호, 4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난관이 생길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돛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고 신앙을 다지다

이 트레이시 윌리엄스

내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자격을 얻기까지는 7년이 걸렸다. 처음에 타푸엘루엘루 감독님께 선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자, 감독님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주셨다. 그리고 그 지침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배운다면 축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것 등 처음에 받은 몇 가지 지침들은 따르기 어렵지 않았다.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내 생활에서 몇몇 “세상적인” 부분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상한 나는 자존심을 세우며 고집을 부렸다.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드를 네 번이나 옮겼고 네분의 감독님과 접견을 했다. 심지어 의학 학위를 받으려고 학교로 돌아간 일도 있었다. 그러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다시 한 번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작했다. 먼저 타푸엘루엘루 감독님께 돌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했다. 감독님은 선교사가 되려면 체중이 요건에 맞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 체중은

한계치를 넘은 상태였다. 곧 좌절감과 당혹감으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하지만 감독님은 나를 격려해 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같이 노력해 봅시다! 한 주에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매주 감독님을 찾아가 하나하나 약점을 해결해 나갔다. 선교사로 봉사할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4년을 더 보내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구주께 의지하며

그 몇 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문제가 생길 때면 그분의 속죄를 더욱 실감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가족이 집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나는 주님이 속죄를 통해 주시는 권능과 위안과 힘에 의지했다. 많은 친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나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나를 그 늪에서 건져 주셨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약점을 이기고 장점을 키우기 위해 구주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친구들과 보내던 금요일 밤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내가 언젠가 봉사하게 될 사람들과 미래의 동반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마침내 나는 자격을 갖추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교부에서 통가어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라피티, 그리고 영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통가인 혈통임에도 남태평양 제도에는 가본 적조차 없던 나는 통가어와도 씨름을 해야 했다.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통가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할 말은 많은데 통가어를 못하니, 내가 하는 말이란 짧고 엉성한 몇 마디뿐이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나는 그저 머리를 끄덕였다. 다들 나를 보고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지만 돌아서면 그 웃음은 좌절과 낙담의 눈물로 바뀌었다. 여기서 이리려고 7년이나 노력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이더서 12장 27절에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연약함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나는 그분께 내 약점과 그분을 믿는 내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 보았다. 나는 그리스도께, 그리고 내 강점에 훨씬 더 많이 의지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복음만큼 그래피티(페인트나 스프레이 래커를 사용하여 벽이나 화면에 낙서 형태로 그리는 그림-유크인)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기로 했다. 내가 경전과 함께 스케치북, 목탄 연필, 유성 마커 그리고 스프레이 래커 페인트 여러 개를 배낭에 챙겨 넣으니 동반자가 웃으며 물었다. “스프레이 페인트로 무얼 하려고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아직 통가어는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제 간증을 보여 줄 수는 있어요.”

그때부터 선교 사업이 끝날 때까지, 나는 건물이 아닌 종이에 그래피티를 하고 영에 기대어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나는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렸다. 내가 그래피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문을 열고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3분을 주면, 나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그래피티로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그들 중에는 남들이 자신을 판단하며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을 느낄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신다고 간증할 수 있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도 했다.

7년 동안 선교 사업을 준비한 덕분에 나는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권능이 있기에 내가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내가 아는 바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간증을 얻게 되었다. 결국, 선교 사업은 7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스티브 더블유
오언 형제
본부 청년 회장

저는 열네 살 무렵에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문제가 있었고, 저는 가만 있으면 친구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이삼 년간 친구들은 담배와 술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어찌나 한두 번이었지만, 그 금요일 무렵에는 이제 우리끼리만 있으면 친구들은 꼬박꼬박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깨끗하게 생활하는 한 친구들과 계속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 부모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이 자신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만 보니, 저는 끊임없이 부모님 앞에서 친구들을 옹호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부모님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요일 밤, 저는 친구들과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자, 마침내 저는 친구들의 행동 때문에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저는 반대편 도로로 건너가 걸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비웃으며, "범생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그쪽에 있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친구가 아니라도 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우리는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에 다다랐습니다. 친구들은 왼쪽으로 갔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갈림길에 서서

저는 끊임없이
부모님 앞에서는
친구들을 옹호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부모님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곳은 집에서 3km쯤 떨어진 곳이었는데, 집까지 걸어간 그 길은 그때까지 걸어 본 길 중 가장 멀게 느껴지는 3km였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했으니 제가 뿌듯했으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그저 끔찍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제 친구도 없이 혼자라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깨달으며 눈을 떴습니다. 열네 살짜리에게는 터없이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

며칠 후, 데이브라고 이름만 알던 교회 회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데이브는 토요일 밤에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는지를 제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있을 가족 저녁 식사에도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친구도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그편이 훨씬 더 재미날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데이브와의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물론 담배나 술은 없었습니다. 데이브의 아버지가 저녁 식사 기도를 하시자 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브와 저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같이 미식축구도 하고, 등교도 같이 하고, 서로 도우며 선교 사업도 나갔습니다. 귀환하고 대학으로 돌아가서는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상대를 찾아 성전을 거쳐 그다음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항상 끈고 좁은 길에 머물 수 있도록 서로 도왔습니다. 이 긴 시간을 보낸 지금도 저희는 여전히 좋은 친구입니다. 모든 것은 필요한 순간에 걸려온 짧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 이 우정의 막후에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오랜 친구들을 잃자, 어머니는 곧 제게 문제가 생겼음을

그 길에는 주님 편에 서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함께 걸을 것입니다.

알아차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시려고 데이브의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데이브의 어머니는 데이브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데이브가 저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영감은 성신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어머니처럼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는" 천사로부터 오기도 합니다.(니파이후서 32:3)

저는 가끔 어머니가 제 어려움을 알아채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셨다면 저와 데이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날날이 알고 계시며, "선행을 하는 자를 통해 하늘의 축복"을 보내 주십니다.(선한 영향 주는 삶, 찬송가, 173장)

함께 걸으며

결국 우리는 모두 자신이 선택한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가 하는 선택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많은 선택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결과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중요한 순간에 내린 결정 덕분에 제 삶에는 항상 축복과 인도의 손길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들에 영감과 힘이 더해졌던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이셨고, 데이브가 저에게 지지와 우정을 보여 준 덕분이었습니다.

지상 생활이라는 이 시험은 우리가 종종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는 자기 시험지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되며 옆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 생활이라는 시험에서는 서로 도울 수도 있고 또 도와야만 하며, 사실 그것은 시험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선택 때문에 터리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하기도 하겠지만, 그 길에는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걸을 것이며, 그들도 그 길에서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선택",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86쪽.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줄 용기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용기를 가지십시오”, 2009년 4월 연차 대회.





찾기, 가져가기, 가르치기

성전 도전 과제에
참여하라

과제는 더욱 커졌다. 여러분은 그
과제를 받고서 실천해 보았는가?

칼리사 크래머

십 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수행하는 침례 수만큼 많은 이름을 준비하고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¹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역시 사도를 통해 주어진 이 도전 과제에 참여하면 가족을 위한 영적인 보호와 치유를 얻게 된다고 약속했다.²

생각해 보자. 주님의 사도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 가족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감으로써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수행하는 의식이 전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멋지지 않겠는가! 앤더슨 장로는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그렇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친구들과 가족들도 똑같이 하게끔 도울 것을 권유했다.

우리는 이 도전 과제를 받아들일 때 영을 느끼고, 간증이 자라며, 성전에서의 경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도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본다.

찾기

우선, 성전에 가져갈 이름을 찾아서 **FamilySearch.org**에서 추가한다. 계보가 4대 이상 완성되어 있다면 FamilySearch에서 후손 보기를 활용해 본다. 가계도에 아직 빈자리가 많다면, 먼저 **FamilySearch.org/findnames**에서 이름을 찾아보아도 좋다.

가져가기

FamilySearch.org를 통해서 의식을 예약하고 출력한 후에는 침례와 확인을 받기 위해 추천서를 소지하고 성전에 이름을 가져갈 수 있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머지 의식을 마치도록 부탁하거나, 의식이 행해지도록 FamilySearch를 통해서 성전에 이름을 제출한다.

가르치기

주변 사람들과 가족 역사의 기쁨을 나눈다! 친구들과 함께 가족 역사를 주제로 모임을 하거나, 부모형제와 함께 가계도를 채워 넣는다. 이렇게 경험한 것을 #TempleChallenge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소셜미디어로 나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성약의 자녀이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인류 가족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책임에 이유 없이 연령을 제한해 놓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야호나, 2011년 11월호, 26쪽.

도전 과제 경험담

“저는 성전 도전 과제를 받아들이면 약속과 축복이 주어지리라는 말씀을 듣고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영이 강하게 느껴졌고 휘장 저편에 있는 영들도 기대에 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위즐리 알, 프랑스

준비되었는가?

여러분이 가족 역사에 대해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든, 위의 도전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주님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주

1. Neil L. Andersen,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address at RootsTech conference, Feb. 14, 2015), [lds.org/topics/family-history](https://www.lds.org/topics/family-history).
2. Dale G. Renlund, in “Opening General Session” (address at RootsTech conference, Feb. 6, 2016), [lds.org/topics/family-history](https://www.lds.org/topics/family-history) 참조.

도전 과제를 받아들이고 완수한 뒤 **templechallenge.lds.org**에서 경험을 나눈다. TempleChallenge라는 해시태그로 경험을 나누어 보자.

여러분의 가족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내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된다.



가족 역사에 참여하는

세 가지 방법

샬리 존슨 오드커크
교회 잡지

십 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여러분의 손가락은 단순히 친구들과 재빨리 문자를 주고받고 트위터를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가속화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장로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상에 대해 연구하고 찾아서 [여러분의] 죽은 친족들을 위해 주님의 집에서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6쪽)

전 세계의 수많은 청남 청년들이 조상을 찾아 대리 침례를 베푸라는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중 케이틀린 디라는 청년은 성전에 가족 이름을 제출할 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케이틀린은 이렇게 말한다. “가족을 위한 성전 의식을 시작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사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함을 찾고 제 자신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이 거룩한 주님의 집에 머물 때라는 사실이에요. 또 회장 저편에 계신 돌아가신 분들과 더욱 친밀해지는 느낌도 들어요. 침례와 확인을 받으면서 이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 왔을 모든 분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느낌이에요. 사랑과 희망이 충만한 느낌이었어요. 이 때문에 제 간증도 훌쩍 자라났어요.”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자, 그럼 어디서 시작하겠는가? 가족에 관한 일화를 배워 보고, 가족 구성원을 인터뷰하며, 성전에 제출할 가족의 이름을 찾아 나선 세 청소년의 경험담을 들어 보자.

조상들은 제게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카일 에스, 미국 텍사스

부 모님과 나는 201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가족 역사를 하면 악의 시대에 우리가 보호를 받으리라는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역사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가족 역사를 하면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 가고 있다. 이 일은 정말 즐거운 작업이다.

나의 뿌리와 내 조상들에 관해 알아 가는 것은 재미있다. 그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삶에서 활용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삶이 어땠는지, 생활이 힘들지는 않았는지 등을 찾아내는 일은 놀랍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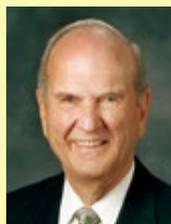
그 예로, 내가 아주 흥미롭게 생각한 조상 한 분이 계셨다. 이 분은 1870년대에 소를 키우려고 가족과 함께 미국 테네시 주에서 텍사스 주로 이주한 분이였다. 그분은 살면서 많은 풍파를 겪으셨다. 나는 그분을 보면서 삶이란 힘들울 수도 있음을 배웠고, 소신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면 나는 가족 역사를 한다. 그러면 내 선조들이 언제나 나와 함께해 주시는 우군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힘든 시련을 이겨 내도록 도우실 것만 같다. 베드나 장로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말이다.

가족의 일화를 찾는 방법

여러분의 조상이 좋아하던 것에 대한 일화를 모아 본다. 여러분의 조상을 좀 더 실제 인물처럼 느끼면서 그들과의 공통점을 찾아본다. 그분들은 어떤 운동을 했는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그분들이 다니던 학교는 어땠는가?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와 일화에 대해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쭙 본다. 가족의 이야기를 모으고 나누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교회에서 제공하는 나의 가족 소재자를 활용할 수 있다. FamilySearch.org에 사진, 일화, 정보 출처, 음성 녹음 기록과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다른 가족들도 조상에 대해 알게 해 줄 수 있다. 시작하려면 FamilySearch.org를 방문하여 “추억”을 클릭한다.



가족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조상에게 돌이키면 마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거대한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통해 조상과 연결될 때 가족이라는 연대를 바라는 선천적인 욕구가 채워집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사랑으로 연결된 세대”, 리아모나, 2010년 5월호, 92쪽.



2 할머니의 이야기를 녹음하며

마티아스 엠, 미국 유타 주

내 친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들은 우루과이에 살고 계신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나는 그 기회를 활용하여 그분들을 인터뷰했고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 회원이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이라 그 시간은 정말로 특별한 시간이었다.

나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언제라도 원할 때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녹음도 해 두었다. 또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먼 훗날에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FamilySearch에도 음성 파일을 올려 두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친조부모님의 인터뷰를 녹음하여 올릴 수 있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아주 많이 알게 되었다. 조부모님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생사를 들려주셨다.

친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들이 직접 들려주시는 그분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내게 주시는 값진 조언을 듣는 것은 정말 특별했다. 내가 고작 몇 분의 시간을 내어 했던 이런 인터뷰가 “[나의] 자손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이다. 물론정에 나오는 선지자 니파이가 그의 후손들을 위해 그랬듯이 말이다.(니파이후서 25:23 참조) 훗날 내 조부모님의 간증을 내 자녀들이 듣게 될 때, 그들의 간증도 강해질 것이다.

가족을 인터뷰하는 방법

와드나 지부 활동으로, 여러분과 다른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나이 드신 가족을 인터뷰를 해 볼 수 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다른 친척들에게 물어볼 질문을 한두 개 생각해 본다. 그런 뒤 그분들과 앉아서 그분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한다. 이 작업을 마치면 FamilySearch.org의 추억란에 올린다.

3 내 목표: 열 분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하기

라야네 에스, 자메이카

족 보 사업이란 내게 늘 흥미진진했다. 마침 지역 회장단이 침례와 확인을 줄 조상 열 분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하라는 목표를 청소년들에게 주었을 때, 나는 떨 듯이 기뻐다.

나는 일단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세 분의 이름을 찾았지만, 그 시점에서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발이 묶인 것만 같았다. 나는 엄마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엄마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 보라고 하셨다.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무척 기뻐하시며 도와주고자 하셨다. 게다가 할머니는 우리가 이야기한 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리 의식을 받아도 좋다는 승낙까지 해 주셨다. 나는 너무나 기쁘고 고마웠다.

그런데 성전에 갈 날은 다가오는데, 아버지 쪽으로는 찾은 이름이 전혀 없었다. 집을 나서기 몇 시간 전, 나는 묘지로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빠에게 부탁해서 고모할머니를 불러 달라고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묘지로 갔다. 아빠와 고모할머니가 묘지 사이를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마치 내가 내 조상들의 몇몇 묘비로 이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복음의 일부가 되어 복음 안에 속하려는 그분들의 바람이 느껴졌다. 성신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나는 내 목표치를 달성했다. 성전에 가져갈 준비가 된 조상들의 이름을 무려 열여섯 개나 찾은 것이다!

성전에 갔을 때, 나는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조상들의 열의와 흥분을 느낄 수 있었다. 침례와 확인을 받는 동안,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 그분들의 영혼이 느껴졌다.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토록 특별한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그분들께 감사하고픈 마음뿐이었다.

성전 의식을 위해 가족의 이름을 찾는 방법

성전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조상을 찾아보려면 FamilySearch.org에서 후손 보기 화면을 눌러 본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성전 도전 과제에 참여한다. 이번 호 54쪽을 참조한다. ■

고린도전서 10:13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견디어 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유혹

“사탄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혹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에 순종한다면

사탄의 유혹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성공은 얼마나 강하게 유혹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대응했느냐에 의해 평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힘을 구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희의 로버트 디 예일즈 장로, 2009년 4월 연차 대회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충실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을 견뎌 내고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

피할 길

탈출구는 늘 있기 마련이다.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장소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 된다. 갖가지 방법이 모두 통하지 않을 때는 애굽의 요셉이 보여 준 대로 그냥 멀리 달아나 버린다.(창세기 39:7~12 참조)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는 되도록 유혹을 피하려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유혹을 받았을 때 즉시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십이사도 정원희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물론 예수님은 그에게 닦친 수많은 유혹을 알아채셨지만, 그것에 관해 거듭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유혹을 즉시 뿌리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혹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곧 그 유혹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1987년 4월 연차 대회)

사람이 감당할 시험

우리가 받는 유혹은 모두 서로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는다. 유혹은 불가피한 것이다. “악마가 사람의 자녀들을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29:39)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경전은 우리가 유혹을 피하도록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 준다.

- 항상 깨어 기도한다.(마태복음 26:41; 앨마서 13:28; 31:10; 34:39; 제3니파이 18:18; 교리와 성약 31:12 참조)
-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한다.(앨마서 37:33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히브리서 2:18; 앨마서 7:11 참조) 그분께 의지한다.
- “주 앞에 겸손하고”(앨마서 13:28) “교만을 조심[한다.]”(교리와 성약 23:1)
-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 굳게 붙”든다.(니파이전서 15:24)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선정된 성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학습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변화를 이루는 방법

죄를 짓고 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패배시키려 고안된 사탄의 도구입니다. 회개는 불길하고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에 이어, 기독교 용어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의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불쌍하고 딱하고 케케묵은 녀석입니다. 낙담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벌써 저는 힘이 빠집니다. “나는 원래 이래.” 하는 말은 제게는 접어 두셨으면 합니다. 죄를 저지르려 하면서 이를 심리적인 문제라고 치부하는

이들에게서 저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좌절과 의심, 절망감을 일으키는 광범위한 습관을 죄라는 말로 포괄적으로 표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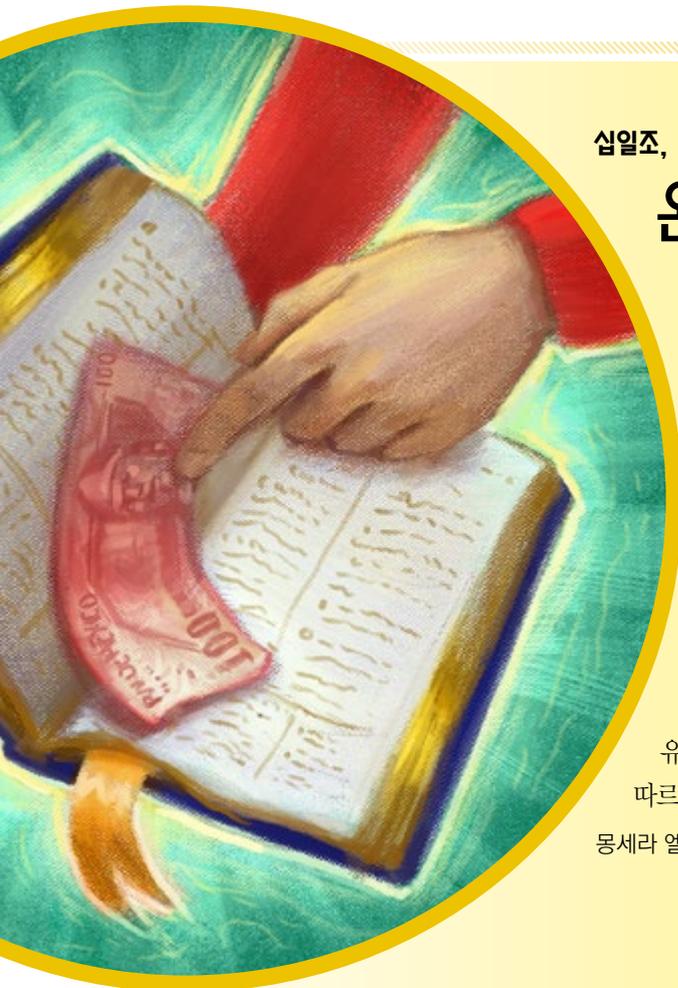
여러분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으며,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또다른 거짓은, 회개하려면 수십 년씩, 한평생이 걸린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여러분이 “나는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데 드는 시간입니다. 물론 노력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회개가 진실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일생 동안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간을 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변화, 성장, 새로워짐, 그리고 회개는 엘마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즉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쉽지도 않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의 쓴 잔과 같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죄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편이 덜 괴롭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는 사탄이 분명합니다. 사탄만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넌 달라질 수 없어. 변하지 않을 거야. 그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든 일이야. 포기해. 그냥 받아들여. 회개하지 마.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친구 여러분, 이것은 절망과 포기가 낳은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

1980년 3월 18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함.

우리들 공간



십일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축복

이 전한 십일조를 처음 냈을 때, 나는 고작 한 달 된 교회 회원이었다. 나는 집에서 유일한 회원이었고, 우리 가족에게 십일조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엄마는 내가 십일조를 내는 것을 싫어하셨고 차라리 그 돈을 엄마에게 주었으면 하셨다.

하루는 출근 전이었는데,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 먹을거리를 사야 할 판이었다. 수중에 돈이 없었던 나는 엄마께 점심 사 먹을 돈을 빌려 달라고 여쭙었다. 하지만 엄마는 거절하시면서 내가 십일조를 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라고 하셨다.

나는 물몬경을 가지러 가면서 엄마에게 이 책이 내게 오늘의 영양분이 될 거라고 했다. 영적인 양분 말이다. 그리고는 엄마 앞에서 책을 펼쳤다. 그런데 그 안에 100페소가 끼워져 있는 게 아닌가. 점심을 사 먹을 만한 돈이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나는 경전에 돈을 끼워 둔 적이 없었다. 나는 훌륭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곳곳에 여러 어려움과 유희가 있다 해도 내가 온전한 십일조를 내고 계명을 지킨다면 늘 축복이 따르리라는 사실이었다. ■

몽세라 엘, 멕시코, 연방 주

성전에 갈 시간

이 두 살이 되자마자 나는 첫 성전 추천서를 받았다. 첫 성전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느낀 평안함은 너무나 특별했다. 비록 대만 남부에 있는 우리 집에서 성전까지는 네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우리 스테이크의 성전 방문 날에 맞추어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심지어 함께 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갔다.

나는 이내 교회 친구들에게 함께 성전에 가자고 권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들도 이제 매달 같이 다닌다. 와드의 많은 이들도 성전에 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와드에서 계획하는 성전 여행 횟수와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성전에 온다. 우리 스테이크 역사상 최고의 숫자다.

내가 매달 성전에 가겠다고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가족도 매달 가기로 했다. 성전 여행 다음 날 학교에서 시험이 있더라도 나와 우리 가족은 꾸준히 참석한다. 가족과 함께 자주 성전에 다닌 지도 이제 칠 년이 되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다. 우리는 성전 방문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

치윤 리우, 대만, 타이난

가장 좋아하는 구절, 또는 신앙을 키우게 되었던 경험을 liahona.lds.org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스테이크와 와드의 이름, 그리고 해당 기사의 출판을 위한 부모님의 동의서를 함께 보내 주세요.

“숙제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교회 활동과 가정의 밤,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매 일 오직 아이스크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자. 꽤 근사하게 들리겠지만, 곧 몸에 이상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브로콜리만 먹고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건강해지려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을 생각해 보자. 영성, 사람과의 관계, 교육은 모두 성장에 필요한 열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따져보고, 무엇에 집중할지 알고자 기도해 보자.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러드 장로는 “매일의 계획표를 작성할 때 주님과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우선 명심”할 것을 독려한다.¹ 주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놓으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

그냥 좋은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것도 있”음을 기억하자.² 무엇이 가장 중요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성신의 도움을 간구하자. 숙제보다 우는 동생을 달래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는 것보다 상호 향상 모임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생활에서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도 알아 두면 좋다.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경전에 시간을 쓰는 것은 어떨까?

무엇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힘을 얻고자 주님께 의지해야 함을 잊지 말자.(이사야 40:31 참조)

주
1. 엠 러셀 벨러드, “인생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유지함”, 성도의 벗, 1987년 7월, 14쪽.
2. 맬린 에이치 옥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7쪽.

바로 하세요

“다쳐서 하면 돼.”라고만 한다면, 사탄은 절대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영을 고양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세요.

앨리슨 알, 20세, 미국 유타 주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마련하세요

복음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말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약간의 일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우리의 의무를 중심으로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비롯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 에이저, 13세, 미국 애리조나 주

경전 공부를 먼저 하세요



저는 숙제를 하기 전에 경전 공부를 먼저 합니다. 학교 공부에 앞서 경전을 공부하면,

머리가 맑아져서 더 많은 내용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계획할 때, 그러한 활동을 먼저 하고 다른 것들은 남은 시간에 할 수 있게 계획하세요.

클라크 장로, 20세, 칠레 콘셉시온 남 선교부

시간 계획을 세우십시오

학생일 때는 시간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



룸메이트와 아침에 하는 영적 모임, 개인 경전 공부, 종교 교육원 수업 등의 주례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시간표를 만들고 각 활동을 중요한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었습니다. 활동을 계획하니 미루는 버릇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에이, 19세, 나이지리아 에도



영원한 것들을 기억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어머니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현세적인 일들과는 달리) 영원히 지속하는 영원한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나머지 일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도와주신다고 확신해요.

바이살리 케이, 18세,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현명하게 움직이세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숙제부터 해요. 그러면 교회 활동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거든요. 어머니가 시간표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 시간표에는 시간대별로 매일 할 일들을 적어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활동에 참여하고, 숙제를 하고, 경전을 읽는 일이 수월해져요.

레이철 오, 13세, 브라질 상파울루



일정표를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단 몇 구절이라도 경전을 읽어 보세요. 이 말은 경전을 읽기 위해

5분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가족과 경전 공부를 할 수 있게 온 가족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함께할 시간을 정하세요. 청소년 활동은 이미 시간이 정해진 것이니 고민하지 말고 가서 와드의 청소년들과 어울리세요.

엘레나 에프, 15세, 미국 아이다호 주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세요

우선순위 정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 주로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을 내기가 수월해져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매일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학교에 가면, 그날은 하루가 24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학교 공부가 더 수월했고,



힘의 근원

“힘은 중항무진하는 활동이 아니라 진리와 빛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자리 잡을 때 옵니다. 힘은 우리의 주의와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라는 기초에 둘 때 옵니다. 신성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옵니다.”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가장 중요한 것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22쪽.

개인적으로나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는 것이 즐거웠어요. 삶에서 주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함을 기억하면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목표를 이루는 일이 한층 더 쉬워져요.

비앙카 에스, 19세, 우루과이 파이산두

다음 질문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불친절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7년 3월 15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작품 제출” 클릭)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표현의 정확성과 분량 조절을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구원의 계획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계획이 차트에 그려진 단순한 그림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내 희망과 위안의 원천이었다.



앨리사 흠

“여러분의 재능을 전부 다 적은 다음, 그중 하나를 발표해 주세요.” 젠슨 자매님이 우리 월계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닌 가장 큰 재능은 배구이고, 배구부 마지막 해가 될 다음 시즌은 제일 멋진 시즌이 될 거라고 나는 당당히 말했다.

“재능은 여러 형태로 찾아와요. 어떤 재능은 영적인 은사이기도 하지요.” 하고 젠슨 자매님은 가르쳐 주셨다. “제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재능은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젠슨 자매님은 어디에서든 사랑이 느껴지는 분이셨으며, 언제나 대화하실 때면 간증을 나누곤 하셨다. 그분이 지닌 사랑은 순수하고 친절했으며 그리스도와 같았다. 젠슨 자매님은 내게는 청녀 지도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 분이였다. 엄마 같은 분이자, 언니 같은 분이었고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콘서트도 가고, 쇼핑도 하고, 딸기잼도 만들었다. 내가 사랑니를 뽑았을 때는 집에서 만든 푸딩을 가져다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찾아오는 것도 좋아하셨다. 젠슨 자매님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셨기에, 내가 참가하는 배구 게임에도 빠짐없이 오셨다.

몇 달 후 여름 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전화벨 소리에 새벽 3시에 잠이 깨었다. 엄마가 전화를 받아 보시더니, 내 침실로 오셨다. “젠슨 자매님 가족이 가족 모임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구나.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되었는데, 젠슨 자매님은 돌아가셨단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럴 리가 없어. 아까도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는 이내 눈물이 쏟아졌다. 울고 있는 내내 엄마가 나를 안아 주셨다. 잠을 이루기란 불가능했다. 나는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낡은 밤을 뜯는 눈으로 지새웠다.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전에 없던 슬픔에 빠져 있었다. 배구는 이제 관심도 없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것도 더는 기대되지 않았다. 나를 신나게 했던 모든 일이 이제는 슬픔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슬픔이 나를

삼켜버린 것만 같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나는 늘 지쳐 있다.”

개학 바로 전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울면서 젠슨 자매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슬픔에 넋더리가 났다. 이 고통을 이겨 내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기도가 필요했다.

나는 “젠슨 자매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주님께서 과연 응답해 주실까를 궁금해하며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머릿속에서 그간 벌어진 일들이 하나씩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마음은 혼 혼해지고 머릿속은 가뻔해졌다. 이런 생각들은 내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았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줄곧 그림으로 배워 온 구원의 계획은 실재하는 현실이었다. 젠슨 자매님은 태어나서, 행복을 경험했고, 시련을 견디어 냈으며,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녀의 영은 여전히 존재하며, 나는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이다. 이 계획, 즉 행복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족 및 친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그 순간 나는 젠슨 자매님을 다시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고픈 마음이 들었다.

학기가 시작되었던 그 몇 주간,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던 젠슨 자매님의 재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서서히 고통이 잦아들고 행복해졌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음을 배웠다.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미소를 지어 주고,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고, 칭찬을 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말이다. 바로 이것이 젠슨 자매님이 나를 위해 해 준 작은 일이다. 결국, 그녀와 함께한 추억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그녀가 보인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이었다.

젠슨 자매님은 돌아가셨지만, 나는 항상 그녀의 사랑을 느낄 것이다. 다른 이들을 위해 매일 조금 더 사랑을 보이려 노력한다면, 결국 그녀가 살았던 삶을 닮아 가는 셈이다. 그러면 젠슨 자매님을 다시 만나는 데도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메릴리 부른
실화에 근거함.

“서로 친절하게 하며”(에베소서 4:32)

그 날은 학교에서 아주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제프는 쉬는 시간마다 가장 친한 친구인 벤과 함께 용이 되는 놀이를 했죠. 제프는 새로운 학교에 다닌 지 이 년이 지나 마침내 친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요. 벤과 제프는 좋아하는 것도 같았고, 항상 서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제프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제프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제프의 미소도 사라졌죠. “제프, 오늘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단다. 선생님께서 네가 너희 반 친구 한 명을 따돌린다고 하시더구나.”

“아니에요!” 제프가 말했죠. 제프는 친구를 따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따돌리는 건 친구들을 슬프고 두렵게 만들잖아요. 제프는 그런 짓을 절대 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이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그리고 제프도 소파에 앉을 수 있게 옆으로 앉으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벤과 네가 샘에게 너희 클럽이 아니라고 저리 가라고 했다고 하시던데, 미끄럼틀 위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리지 못하면 클럽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면?”

제프는 고개를 숙였어요. 샘은 거의 매일 제프와 벤에게 같이 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프의 가장 친한 친구는 벤이라서 둘이서만 노는 게 좋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샘을 따돌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랑 벤이 둘이서만 노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제프가 물었어요. 단지 가장 친한 친구랑만 놀았기 때문에 누구를 따돌린다고 말하는 건 공평한 것 같지 않았죠.

“너희 둘은 어차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잖니. 하지만 샘과 함께 있을 때, 샘이 혼자라고 느끼게 하거나, 버려졌다고 느끼게 하는 건 잘못된 거란다. 교장 선생님은 네가 샘이 미끄럼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다고 놀렸다고 하시던걸.”

“전 안 그랬어요!” 제프가 말했어요. 하지만 벤이 그랬죠. 그리고 제프도 함께 깔깔대며 웃었고요.

“처음 이사 왔을 때 어땠는지

따돌린다고? 내가?

기억나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제프가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에는 학교에서 무척 외로웠어요. 좋은 친구를 찾게 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었죠.

“친구들이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랐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쉬는 시간에 저보고 같이 놀자고 해 주기를 바랐어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같이 앉으라고 하거나요.”

“지금 좋은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지 않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너도 네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이 외로워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가 숙제를 줄게. 내일 샘의 좋은 점 세 가지를 찾아보렴.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엄마에게 말해 주는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프는 신발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프는 누군가를 따돌리려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내일 샘에게 미안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벤에게 샘도 함께 데리고 놀자고 말할 거예요.

“얘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제프의 고개를 들어 올렸어요. “넌 착하고 친절한 아이야. 너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샘에게 행운이란다. 그리고 이거 아니? 너도 샘과 친구가 되어서 행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제프는 살짝 웃어 보였어요. 벤은 여전히 제프의 가장 친한 친구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사귀어서 나쁠 건 없죠.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친절 미션

- 잘 알지 못하는 친구의 좋은 점 세 가지를 찾아본다.
-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본다. “구주 내 곁에 계시면”과 같은 초등학교 노래를 흥얼거린다.
- 모든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친절해질 것을 선택할 수는 있다. 친하지 않은 친구 한 명을 골라 뭔가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해 준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

친구에게 사랑을 나눠요

데반 젠슨, 미국 유타 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렌탈린이에요.

저는 태평양에 있는 웨노 섬에 살아요. 웨노는
추크 주의 여러 섬들 중 하나죠. 저는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함께 춤 추고, 노래하고, 교회에
초대함으로써 표현해요.



사랑의 노래

친구들과 저는 함께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내가 먼저
친절하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 성전 보고 싶어”예요. 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인봉되기 위해 성전에 가고 싶어요.

친구 초대하기

저는 제 친구인 데미나와 시나를 교회에 초대해요. 그러면 친구들은 가끔 저와 함께 교회에 가요. 이 친구들이 언젠가 침례를 받으면 좋겠어요.



렌탈린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한다.
-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겁게 논다.
-  가족과 가까이 지낸다.
-  선교사와 친구가 된다.

친구에 관한 춤

제 친구들과 저는 선교사인 하디 자매님에게 발레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 발레는 섬에서 길을 잃은 릴리라는 소녀가 친구를 통해 길을 찾게 된다는 내용이지요.



사촌 방문하기

저는 제 사촌들을 사랑해요! 사촌들이 사는 로마섬 섬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해요. 우리 삼촌과 사촌들은 배를 몰 줄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배를 태워 주기도 해요.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보내 주세요. liahona.lds.org에서 제출하거나("기사 제출"을 클릭하세요)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 데빈 잰슨 및 레이첼 마텔

곱셈 전문가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루카에게는 좋은
계획이 있었죠.

제시카 라슨
실화에 근거함

“Love the Lord and do your part (주를 사랑하고 네 할 일을 다 하라)” (어린이 노래책 14쪽, 한국어 노래 가사는 다르게 번역되었음)

9 곱하기 7은 63. 6 곱하기 8은 ... 42? 아니야, 틀렸어!
루카는 급하게 자기가 쓴 답을 지웠어요.

“시간 다 됐어요!” 루카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시험지를 제출하세요.”

“아, 안 돼!” 루카가 생각했어요. “아직 다 풀지도 못했는데!”
루카는 시험지를 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구구단을 통과하고 곱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 시간 안에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맞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90점을 넘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예전에 저는 구름사다리 타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해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세 번째 칸까지밖에 갈 수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용감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 다시 도전해 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네 번째 칸까지 갈 수 있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칸도요! 저는 점점 더 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더 용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제가 계속 시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잘 하게 되었다는 걸 알아요.”

릴리 에스, 7세 미국 아칸소 주



그날 밤, 가족 경전 공부 시간에, 아빠는 교리와 성약을 읽으셨어요.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내게 구하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6:5)

루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기도!

루카는 그 후로 곱셈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았어요. 효과가 있어야만 했죠. 드디어 곱셈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화요일이 되자, 루카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농구공을 집어 들었어요.

“공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루카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루카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곱셈 연습에 쓰이는 암기 카드를 꺼내 보지도 않았죠.

금요일이 되었고, 루카는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험을 보려고 자리에 앉자, 정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보다 더 시험을 못 봤죠!

루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걸어왔어요. 곱셈 전문가가 되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루카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루카는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농구를 했어요. 아빠가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루카가 멈췄어요.

“학교는 어땠니?” 아빠가 물으셨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루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곱셈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것참 안됐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공을 패스해 달라고 손을 들어 올렸어요.

“통과했어야 했다고요!” 루카가 말했어요. “기도도 해 보고 다 해 봤어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분명히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암기 카드로 연습은 했니?” 아빠가 물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공부를 안 한 거니?”

“네.” 루카가 말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내내 기도했다고요!”

아빠가 공을 바닥에 튕기며 루카를 바라보셨어요. “음, 곱셈은 농구와 같은 거란다. 농구를 어떻게 잘하게 되었니?”

“연습했죠.” 루카가 말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경기 전에 네가 도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네가 마법처럼 더 좋은 농구선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는 않았지. 보통 뭐라고 기도를 하지?”

“제가 연습한 대로 잘하게 해 달라고요.” 루카가 말했어요.

“그렇단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암기 카드를 공부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가요?” 루카가 물었어요.

“그렇지.” 아빠가 루카에게 공을 패스하며 말씀하셨어요.

루카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슛을 쏘았어요. 공은 가장자리를 맞고 튕겨 나갔어요. “알겠어요. 많이 노력해야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 달라고 간구하면 될 거예요.”

“바로 그거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일대일 한번 붙어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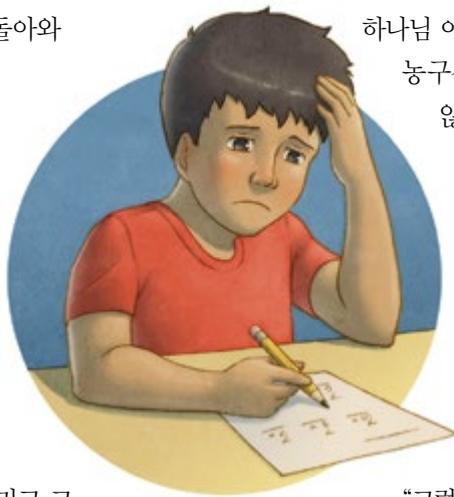
루카가 활짝 웃으며 아빠의 공을 가로챘어요. “그래요! 아빠가 동시에 제 공부를 도와주신다면요.”

“좋아, 시작한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6 곱하기 8은?”

“48!” 루카가 슛을 쏘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공이 링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루카가 연습과 기도를 함께 병행하면, 결국에는 곱셈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 주에 산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권 열쇠란 무엇인가요?

신권 열쇠는 자동차 열쇠처럼 손에 쥐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권 열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 또는 허락을 뜻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신권 열쇠를 통해 지상에서 신권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관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권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그분의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조셉 스미스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이러한 열쇠들이 있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관리합니다. 그분들은 감독과 지부 회장에게 신권 열쇠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줍니다.



신권 열쇠가 지상에 있기에,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아플 때 신권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성전에서 인봉될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겼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차가운 바람이 스티븐슨 가족의 두 뺨과 코를 스쳤어요. 스티븐슨 가족은 스키를 타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눈 속을 걸어 차로 향했어요. 열린 차에 들어가서 히터를 켜고 몸을 녹이고 싶었죠.

하지만 스티븐슨 장로님이 차에 다다라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주머니 속에 있어야 할 자동차 열쇠가 온데 간데 없지 뭐예요! “열쇠가 어디 있지?” 장로님은 생각했어요. 모두 장로님이 차 문을 열어 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자동차 열쇠가 없으면, 자동차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동차의 문을 열 수도, 시동을 걸 수도 없었어요. 당연히 히터도 켤 수 없었고요.

스티븐슨 장로님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장로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동차 열쇠를 찾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뒤 열쇠를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최대한 열심히 생각해 보았죠. 그러자 장로님은 그날 스키 점프를 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어쩌면 열쇠가 그쪽 어딘가 눈 속에 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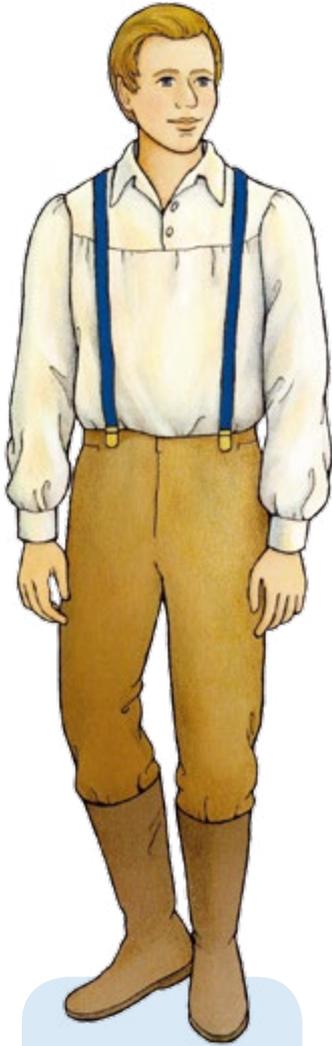
가족 중 몇 명이 스티븐슨 장로님과 함께 다시 스키장 꼭대기로 돌아가서 다시 스키를 타고 내려왔어요. 스키 점프 밑 부분쯤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어두워지는 동안 다 같이 열심히 열쇠를 찾았어요. 놀랍게도,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열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기도로 자동차 열쇠를 찾았던 이 경험을 통해 스티븐슨 장로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추운 곳에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모두를 그분이 계신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그들에게 신권 열쇠와 권능을 주셨답니다. ■



침례와 신권이 회복되었어요

교회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경전 인물 그림을 사용하세요!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올리버 카우드리는 조셉 스미스의 물문경 번역을 도왔어요. 조셉 스미스가 경전을 번역해서 소리 내어 읽으면, 올리버는 그것을 기록했죠. 그들이 침례에 대해서 읽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침례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여쭙었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나타나 아론 신권을 주고 가르침을 주었어요. 조셉이 올리버에게 침례를 주고, 그 후에 올리버가 조셉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주었어요.

연차 대회 인용문 카드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나온 몇 가지 주옥 같은 문구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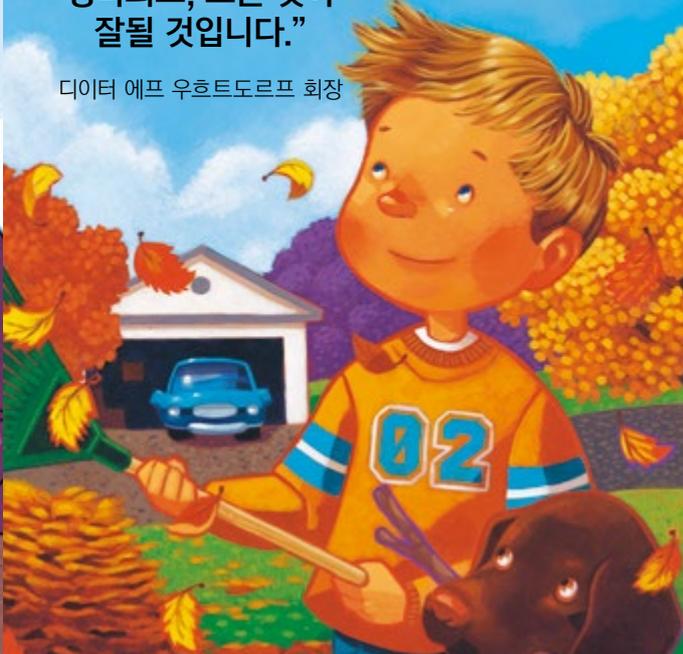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또한 언제나
도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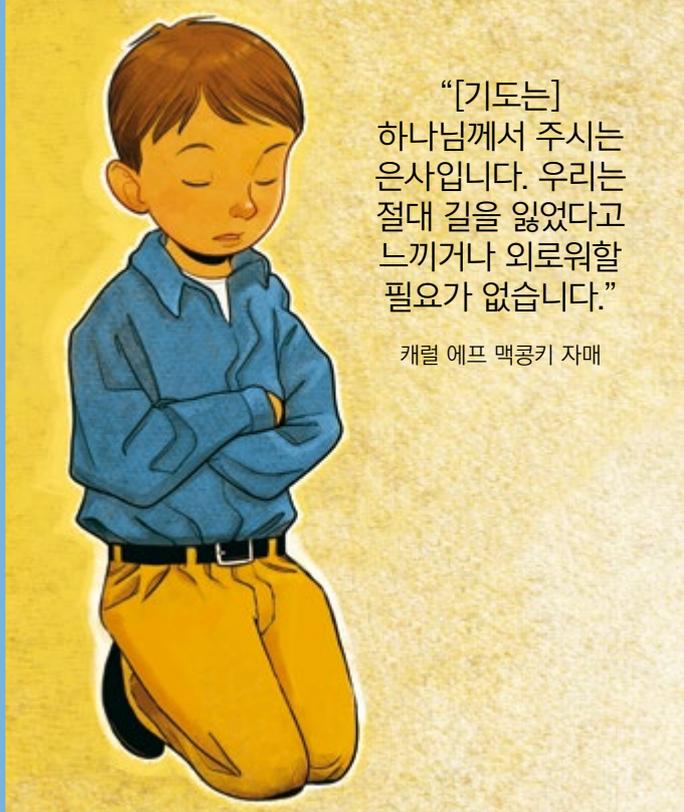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리되고,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절대 길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럴 에프 맥쿱키 자매



**“우리에 관한
[의견들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뿐입니다.”**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예수님이 어린이였을 때

김 웹 리드

예수님이 어린이였을 때,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분의 형제자매와
함께 살았어요. 그분은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혜롭고 강하게 되는 법을
배웠어요.



매년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먼 여행을 떠났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해,
집에 가려고 할
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친구들과 함께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지난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챘죠.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시내로 급히 돌아갔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경전에 관해 가르치고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시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분이 너무 지혜로워서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성전에 머물렀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도 경전에 관해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41~25에서 발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제임스 이 탈매지
(1862~1933)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어리석은 벌의 비유

우리 중 어리석은 벌보다 더 현명한 자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때때로 조용하고 호젓한 곳에서 혼자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는 솔트레이크 성전 꼭대기층에 있는 방입니다. ... 그 방은 접근하기도 어렵고 비교적 사람의 방해도 거의 받지 않는 곳입니다. ...

하지만 방문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어 놓고 앉아 있으면, 때때로 곤충들이 날아 들어와 그 방을 저와 함께 공유했습니다. ...

언젠가 인근 언덕 너머로부터 벌 한 마리가 제 방 안으로 날아 들었습니다. 한 시간도 넘게 그 벌이 날아 다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곤충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자, 온 힘을 다해 살짝 열린 창문을 나가려 애썼지만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갈 시간이 되어, 저는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그 벌을 유도하여 자유와 안전을 찾아 나가도록 도왔습니다. 방안에 남겨 놓으면, 옛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닫힌 방 안의 건조한 환경 때문에 곤충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벌을 몰아 밖으로 날아가게 하면 할수록



그 벌의 저항은 더 심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평화롭게 웅웅거리던 소리가 매우 성난 소리로 바뀌고, 날아 돌진하는 공격이 매우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방어망을 뚫고 날아 들어, 자기를 자유로 인도하고자 했던 제 손을 쏘았습니다. 결국 벌은 저로부터 도움도 해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피해 날아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위에 앉았습니다. 벌에 쏘인 곳이 몹시 아프기 시작했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벌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저항과 도발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벌을 스스로의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일 후 그 방에 돌아왔을 때, 저는 글 쓰는 데 사용하던 테이블 위에서 말라 죽어 있는 벌을 발견했습니다. 스스로의 고집과 완고함으로 인한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벌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오해의 시각에서 보자면, 저는 그의 적이자, 끈질기고 집요한 박해자요, 그를 파멸로

몰고 가는 난폭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자신의 실수로 죽음에 직면한 그의 생명을 구하려 했던, 또한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죽음의 감옥에서 그를 구하여 바깥 자유의 공기 속으로 되돌려 보내려 노력했던 그의 친구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벌보다 현명하다고, 즉 그의 어리석은 행동과 우리의 인생 사이에는 전혀 비슷한 점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역경에 부딪히면, 우리는 때때로 화를 내며 그 역경에 격렬하게 맞서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실 역경이란 결국에는 더 큰 지혜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필멸의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분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신성한 성역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재물을 잃는 것은 그들을 이기적인 방종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력을 통해 수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더 밝고 자유로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의 축복이자 하늘의 섭리가 되었습니다. 실망, 슬픔, 그리고 고난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절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벌의 교훈을 생각하십시오! ■

Improvement Era, 1914년 9월, 1008~1009쪽; 구두점 현대화.

往前是人多許有必

我们登主的
 殿 雅各的神
 的 道 敬 拜 神
 我们 的 是 妻
 行 的 务
 因 为 律 法 必
 出 於 锡 安
 三 年 九 月
 于 北



많은 백성이 가며(타이완 타이베이 성전에 대한 묘사), 친 타이 쟁

“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아꿈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가 그의 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시온에서 울범이 나아 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임이니라.”(나파이후서 12:3)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불완전함

속에서 찾는 평화

살다 보면 종종 스스로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불완전함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희망을 찾게 되고 이를 통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44쪽

청소년



54쪽

찾기, 가져가기, 가르치기 성전 도전 과제에 참여하라

충분히 생각했고, 어떻게 하지도 배웠다. 이제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뛰어든 시간이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조언을 읽어 보자.

어린이

신권 열쇠란 무엇인가요?

신권 열쇠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열쇠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열쇠로 많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받을 침례처럼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72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